

EAST ASIA INSTITUTE

2008-2009 Annual Report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 2008-2009 연차보고서



이사회

- 이흥구 이사장 · 전 국무총리
- 강은모 유성 C.C.
- 강찬수 KANG & COMPANY
- 공유식 아주대
- 김 준 경방
- 김병표 주원
-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윤호 우림FMG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 김형국 숙명여대
- 남태희 STORM VENTURES
- 노익상 한국리서치
- 민선식 YBM Sisa
- 박경수 피에스케이
- 박상용 Goldman Sachs
- 박진원 법무법인 세종
- 박찬근 비엠케이리미티드
- 서진영 고려대
- 선승훈 의료법인 선병원
- 신동원 농심
- 여동찬 JIM & HALL's KOREA
-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 임현진 서울대
- 장대환 매일경제
- 조상호 나남출판사
- 최진원 펜얼라이브
- 최철원 (주) M&M
- 하영선 서울대
-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 홍석현 중앙일보

감사

- 오동기 금오회계사무소 회계사



EAI는 국익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구상하고 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싱크탱크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미래한국을 밝히는 초석이 된다는 신념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사회에 전파합니다.

Mission

EAI는 시민주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합니다.

관용, 책임감, 다양성, 투명성, 기회 평등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EAI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에 기초한 평화로운 국제사회 형성에 기여합니다.

EAI는 미래를 향한 국가 대전략적 사고 하에 민주주의 공동체 형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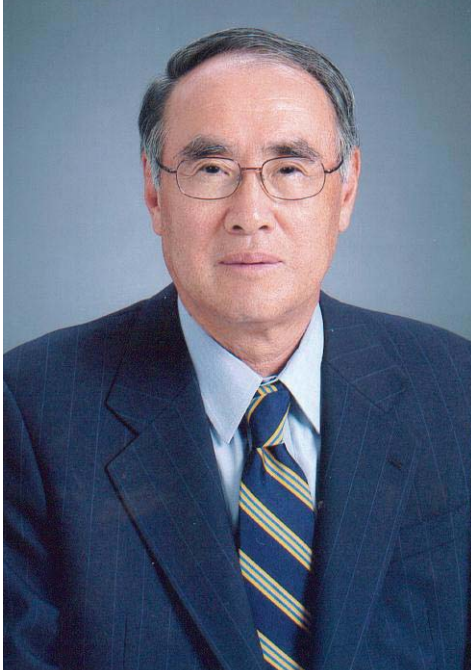
평화로운 동아시아 구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아이디어를 전파합니다.

EAI의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한국의 '안'과 '밖'을 엮어 미래 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EAI의 교육과 인재개발 프로그램은 미래한국을 이끌고 나갈 젊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EAI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세계수준의 싱크탱크를 만들겠습니다



이사장 **이홍구**

을지로에서 연구원 개원식을 가진 지 불과 얼마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EAI는 여전히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보다 나은 세상과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걷고 있습니다. EAI는 편협한 좌우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경제적 권력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튼실한 한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이 있기에 더 크고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사람과 만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라는 정체성을 지켜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EAI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 다. 그 원동력은 바로 EAI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신념 그리고 꿈입니다.

EAI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루어 냈 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리고 많지 않은 인원으로 이루어낸 값진 자산입니다. 지난 7년간 EAI는 언론보도와 단행본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의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전파해 왔습니 다. 특히 EAI가 발간하는 세계적 수준의 영문학술저널인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동아시아 연구를 진정한 지역학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저널 중 하나로 국내외 학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관료·기업인·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각종 포럼과 컨퍼런스 그리고 강연회는 국내외 지식사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 왔습니 다. 이렇듯 EAI를 통해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며 지식과 사람이 연결됩니다.

저는 2년 전 연차보고서를 통해 EAI를 미래 한국의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싱크탱크로서 커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식사회는 아시아안보 연구의 핵심기관인 EA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EAI를 방문하여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EAI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보는 세계로 열린 창이며, 세계의 지식과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것입니다.

EAI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변함없는 꿈과 열정이 있고,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AI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미래 한국을 개척해 가는 도전정신이 EAI를 늘 새롭게 합니다. EAI는 오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식 네트워크 EAI의 힘과 열정

EAI는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 차별화된 싱크탱크입니다.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해 한 해 약 20여개의 패널과 연구팀에서 2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연구가 우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학자,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 이루어집니다.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근 스태프는 석사와 박사급 연구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과 함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인턴들 또한 EAI의 소중한 인재로서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의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과 교육, 각종 컨퍼런스 대부분이 국내외의 프로젝트 펀딩으로 수행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기업인과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전문가가 상호교류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공문제를 함께 토론합니다. 이렇듯 EAI는 인력, 재정, 운영 모든 측면에서 다른 국내 연구기관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싱크탱크입니다.

창립 7주년을 맞는 EAI는 그동안 여러 성과들을 일구어 왔습니다. 국내외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연구 결과물을 생산했으며 영향력 있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고위급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 언론인, 외국 대사 등 공공정책의 주요 당사자들을 초청하여 전문 연구자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밖으로 전파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발전된 국가로의 길을 닦기 위함이었습니다. EAI의 지식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어 세계의 학자와 연구기관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아웃바운드 네트워킹은 세계에 한국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발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디어의 힘으로 보다 나은 한국을,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EAI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EA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요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흠어져 있는 우수한 연구자들을 모으는 힘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서로 배우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시너지효과를 많은 연구자들이 경험합니다. 둘째는 지식 네트워킹의 유연한 힘입니다. 조직에서 연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한시적 조직이 만들어지는 지식 네트워킹은 선도적 연구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모델입니다. 셋째는 작은 후발주자이지만 국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좋은 모델들을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접목의 힘입니다. 이러한 힘들은 EAI를 자신들의 꿈나무로 보고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참여자와 후원자들 덕분에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꿈나무가 점점 자라나 풍성한 과실을 맺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싱크탱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아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장 이숙종

Knowledge-Net for a Better World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Contents

09 평화와 안보

19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25 여론분석

33 교육과 인재개발

39 포럼과 컨퍼런스

49 출판

East Asia Institute
2008–2009 Annual Report



Knowledge-Net
for a Better World

Peace and Security

평화와 안보

21세기는 변환의 시대이다.

지구촌 전체가 세계화의 영향 아래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가 하면

지식이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부와 권력의 원천으로 부상하는 시대이다.

아울러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권력구조의 중심축이 변화하고 테러리즘의 확산이

삶의 불확실성을 한층 증폭시키는 시대이다.

이처럼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는 삶의 전영역이 재편되는 변환의 시대는

냉전 대 탈냉전의 이분법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

좌와 우만을 바라보는 단안적 편견이 아니라

앞과 뒤는 물론 위와 아래까지 살피는 복안적 안목으로

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해야 변환의 시대에 평화와 번영을 성취할 수 있다.

EAI 외교안보연구는 시대정신에 맞는 변환전략을 구상하여

한국사회에 복안적 시각을 확산하고 국익을 달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복합동맹을 향한 한미동맹의 변환

21세기는 변환의 시대이다. 한미동맹 또한 변환되어야 한다. 일찍이 미국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전략으로 군사변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체제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 전략의 변화에 따른 동맹의 성격과 형태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동맹국으로서 미군과 함께 작전을 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동맹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자신의 국력규모에 걸맞게 한미동맹을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안보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변환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 방향이 바로 복합동맹이다.



한미동맹의 변환전략

EAI는 한미동맹이 '복합동맹'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한미동맹 자체가 한국의 탈냉전 논리와 미국의 변환논리 사이에서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인식 하에 미국의 변환전략에 대응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 하는 전략으로 한미 복합동맹으로의 변환을 제안하였다.

미래 한미복합동맹은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한반도를 벗어나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으로, 대응중심에서 예방중심의 다차원적 포괄 협력동맹을 지향해야 한다.

EAI 한미동맹로드맵 연구팀은 한미동맹을 복합동맹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2006년 5월 23일 한미동맹로드맵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10월 단행본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로 출간하였다. 아울러 매년 평택시의 후원을 받아 한미동맹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 후원 : 한미협회 · 중앙일보 · 아시아재단 · 평택시

한미동맹로드맵 연구팀

- 공동위원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 고문
김경원 EAI 이사
- 연구진
김병국 전 EAI 원장, 고려대
김성한 고려대
김영호 국방대
김일영 성균관대
김태현 중앙대
김태효 성균관대
박철희 서울대
신옥희 서울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이상현 세종연구소
이시영 중앙대
전재성 EAI MASI 센터 소장, 서울대
차두현 국방연구원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한미동맹로드맵 학술회의 참가인사

- 한미동맹로드맵 연구팀
이흥구 EAI 이사장, 전 국무총리
한승주 EAI 이사, 전 주미대사
김경원 EAI 이사, 전 주미대사
류재건 열린우리당 의원
박 진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심의관
박찬봉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상근대표
김병기 국방부 한미동맹팀 팀장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Alexander Vershbow 주한미대사
Stephen Sargeant 주한미군 부참모장
James Wisecup 주한미해군 사령관
Edward Reed 아시아재단 대표
Don Q. Washington 주한미대사관 공보참사관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지난 7년동안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온 EAI는 2009년 1월 미국의 맥아더 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 안보연구 프로그램”(Asia Security Initiative: ASI)의 핵심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외에서 총 27개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안보문제를 파악하고 이 지역의 갈등완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EAI는 “동북아 안보의 도전”(Northeast Asian Security Challenge) 클러스터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중국·대만·미국의 여섯 개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AI는 ASI 프로그램의 운영할 기관으로서 EAI 내에 ‘아시아안보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동북아 안보연구 클러스터의 6개 협력기관들과의 활발한 지적·인적 교류 수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비정부간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는 향후 3년 동안 “21세기 세계 동맹질서 변환”, “북한 선진화 연구”, “동북아 정체성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전재성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MACARTHUR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맥아더 재단(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은 1978년 설립된 미국을 대표하는 민간 연구지원재단이다. 현재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의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지원 기금을 지원해 왔다. 2007년 12월 현재 맥아더 재단은 약 7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로 보면 미국의 10대 민간 연구지원재단 중 하나이다. 맥아더 재단은 매년 지식개발, 개인 창의성 개발, 공공제도 및 공공정책의 개선을 목표로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지원사업을 세계적 차원에서 펼치고 있다.

세계 동맹질서 변환 연구

동북아는 거대한 세력재편의 과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축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구조 재편을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등의 다자기구 형성을 통한 연성 균형전략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EAI는 동북아 국가간의 세력재편 과정을 이해하고 각 국가의 동맹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의제로는 동북아 주요국들의 군사전략, 현재의 동맹 네트워크 및 동맹 전략, 지역협력과 다자협력, 한국의 동맹정책 등이 있다.



하영선 국가안보패널 위원장

21세기 동맹의 6가지 특징

1. 구체적인 적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 21세기 동맹은 문명과 민주주의의 적과 같이 안보위협 개념을 추상화하여 사안에 따라 군사력을 신축성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동맹개념을 재조정한다.
2. 군사 공간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안보위협은 탈영토화되고 군사기술은 신속이동과 장거리 투사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 적이 영토적 네트워크가 아닌 인적·초국적·사이버 네트워크를 타고 작동함에 따라 동맹의 유대 역시 영토성을 탈피하여 네트워크화 한다.
3. 위협이 초지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맹의 형성과 연대 역시 초지역적으로 변화한다. 테러의 위협이 미국 군사전략의 주된 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동맹 간의 네트워크, 초지역적 연대망이 중요하게 부상한다.
4. 군사기술의 발전과 억지전략의 적용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 이전에 위협의 불특정성 및 억지불가능성을 내세워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5. 동맹의 군사적 성격과 더불어 비군사적 성격 및 역할이 강조된다. 테러위협 성격상 정보의 공유, 테러집단과 은신처의 색출,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 경제제재의 군사적 지지, 강압외교 등이 강조됨에 따라 동맹은 비군사적 목적을 위해 점차 빈번하게 발동되게 된다.
6. 상대국이 동맹국의 활동 범위의 확대와 다양한 이슈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이념적 지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특히 민주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상대국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중요해진다.

EAI 국가안보패널

- 위원장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 간사위원
전재성 EAI MAS센터 소장
서울대
- 연구진
김성한 고려대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마상윤 가톨릭대
민병원 서울산업대
박종철 통일연구원
박철희 서울대
배영자 건국대
손 열 중앙대
신범식 인천대
신성호 서울대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이동선 고려대
이상현 세종연구소
이용욱 고려대
이태환 세종연구소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원
장 훈 중앙대
정진영 경희대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가장 위협적이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 핵 자체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 전체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제시가 가능하다.

EAI는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북한과 한반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국내외 정치를 함께 다루면서 북한의 현재를 안보, 경제, 문화(인권), 환경(에너지)등 주요 이슈로 진단하고 과학기술, 정보, 지식을 통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조동호 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의 '안' 과 '밖' 이 함께 변화하는 공진화

“새로운 북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비핵화와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와 더불어 21세기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주변국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햇볕정책과 제재정책을 넘어서는, 제3의 전략, 북한과 주변의 ‘공진화’ (coevolution) 전략이다.”(출처 : [EAI 논평 제1호] 한미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 : 북한 제재전략에서 ‘공진화’ 전략으로)

“북한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와 맞물려야 한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 . . ‘상생·공영’이라는 이름은 적절했지만, 그 안에 정착 ‘우리’는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일괄타결하는 ‘그랜드 바진’(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핵 이후의 북한, 그리고 우리의 공진화 전략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
(조동호, [중앙시평] 남북의 공진화, 중앙일보 2009. 9. 23)

북한선진화 패널

- 위원장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 위원
강호제 이화여대
김수암 통일연구원
우승지 경희대
전재성 서울대
조동호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대
황지환 명지대



동북아지역 정체성 연구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불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정체성(identity)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역사적 경험과 자국과 타국에 대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EAI는 2009년 5월 동북아 정체성 연구팀을 구성하여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정체성이 지역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 먼저 구체적인 연구의제로 다층적 정체성, 역사인식과 영토분쟁, 동북아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정체성과 소프트파워의 관계 등을 선정하였다.

2010년에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중국·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북아지역 정체성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1차 동북아 정체성 연구 세미나(2009. 3. 9)

주제 : 연구의 목적, 기능 및 연구 의제

제2차 동북아 정체성 연구 세미나(2009. 6. 23)

주제 : 이론적 틀 구조의 발전

제3차 동북아 정체성 연구 세미나(2009. 7. 9)

주제 : Reconciling Rivals: War, Memory, and Security in East Asia

발표 : Mike M. Mochizuki

제4차 동북아 정체성 연구 세미나(2009. 7. 28)

주제 : 정체성 연구에 대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사고

발표 : 객준혁

제5차 동북아 정체성 연구 세미나(2009. 10. 4)

주제 : 정책 결정에 대한 정체성의 영향력

발표 : 이용욱



이숙종 원장

동북아정체성연구팀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객준혁 EAI 가치와 윤리센터 소장

고려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이용욱 고려대

전재성 EAI MASI센터 소장, 서울대

김 정 EAI 선임연구원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ASI Scholar 프로그램

EAI는 ASI Scholar 프로그램을 통해 안보분야의 젊은 학자들을 선발하여 '동맹변환연구', '북한선진화 연구', '동북아 정체성연구' 등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한 개인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총 16명을 선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슈브리핑'과 '워킹페이퍼' 두 종류의 정책 보고서를 통해 부정기적으로 발간된다.

Working Papers

- 이용욱 "Regional Financial Solidarity without the United States:
Contested Neoliberalism in East Asia"
- 황지환 "Understanding North Korea's Strategic Assessments in 2009
and the Reference Point Gap on the Korean Peninsula"
- 전재성 "Korea's Grand Strategy as a Middle Power State"
- 최 강 "Korean-American Alliance: A Vision and a Roadmap"

Issue Briefings

- 이숙중 "South Korea's Soft Power Diplomacy"
- 신성호 "A Smart Alliance in the Age of Complexity: ROK-U.S.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 전재성 "Moving from a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o the Problem
of North Korea"
- 조동호 "Muddling along with the Missiles"
- 손 열 "Japan between Alliance and Community"
- 전재성 "How Comprehensive is Comprehensive Enough?"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a
Comprehensive Deal"
- 이숙중 "China's Soft Power: Its Limits and Potentials"
- 구민교 "Embracing Asia: South Korean Style: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s Instruments of Foreign Policy"

ASI Scholars

- 동맹변환연구
구민교 연세대
손 열 연세대
신성호 서울대
이동선 고려대
전재성 EAI MAS센터 소장
서울대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한석희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연세대
- 북한선진화연구
김병연 서울대
전재성 EAI MAS센터 소장
서울대
조동호 이화여대
주형민 고려대
황지환 명지대
- 동북아정체성연구
곽준혁 EAI 가치와 윤리센터 소장
고려대
김 정 EAI 선임연구원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이용욱 고려대



미중관계 2025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은 중국과 미국의 역학이다. 중국은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또한 비록 국제사회 리더십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힘이 충돌하느냐 아니면 협력하느냐는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AI는 앞으로 15년 후인 2025년, 미국과 중국관계가 어떤 성격을 지닐 것인지를 예측하는 연구를 2년 동안 진행한다. 미중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연속선에서 어디에 위치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중관계가 어떤 구체적인 특성들을 지니게 될지가 핵심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중관계의 변화양상에 따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EAI 미중관계 연구팀은 세 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제1단계 연구에서는 미중관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제2단계에서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함의를 도출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3단계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이슈영역별 주요이슈

이슈영역	주요이슈(세부항목)
안보	상호인식(위협 또는 협력자) 군비(경쟁 또는 통제 · 축소) 지역안보현안(대만 및 한반도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경제	양자무역(경쟁 또는 협력, 분업체계, 수지균형) 양자금융(경쟁 또는 협력, 자본의 흐름, 수지균형, 국제적 위상) 다자경제(항해경제권, 동아시아 경제지역주의)
문화	소프트파워(미 · 중의 상대적 매력) 문화외교(워싱턴 컨센서스 대 베이징 컨센서스)
환경	기후변화 등 환경보존문제(협력 또는 대립) 에너지 및 자원문제(협력 또는 갈등)



김병국 전 EAI 원장, 고려대 교수

참여 연구자팀

- 연구위원
주형민 고려대
이동선 고려대
황지환 명지대
정주연 고려대
이용욱 고려대
손 열 중앙대
김 정 간사, EAI 선임연구원
곽준혁 EAI 가치와 윤리센터 소장
고려대
김동훈 고려대
신범식 인천대
- 토론자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전재성 EAI MAS센터 소장
서울대
차두현 국방연구원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의 미래전략과 동아시아

세계의 권력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권력이동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의 부상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한중 양국간 상호의존을 증가시킴으로써 무역과 투자의 지평을 넓혀주는 기회요인일 수 있지만 한국경제의 기반을 잠식하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확장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은 한국의 안보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부상하는 거대 중국의 곁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향후 대 중국 전략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EAI 중국연구패널은 2008년부터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의 미래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2020년 중국의 국내적 환경과 국제적 위상을 전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장래에 어떠한 강대국이 되려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대전략은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석희 중국연구센터 소장

EAI는 본격적인 중국연구를 위해 2007년 12월 중국연구패널을 구성하고,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및 정책결정자들과의 다면적 교류를 위해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동률 중국연구패널 위원장

중국연구패널

- 위원장
이동률 동덕여대
- 위원
김영진 국민대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정남 고려대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소
하도형 국방대
한석희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연세대

2020년 중국의 국가목표와 전략

중국은 2020년까지 조화로운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의 평화적 부상을 목표하고 있다.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국은 당분간 국제체제의 규범 및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주도의 국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전략적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전략

냉전 종식 이후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적·정치적 세력확대, 이른바 ‘보통국가’(normal state)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 신장이란 일본의 외교정책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은 물론 경제대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국익에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환경·개발·인권 문제 등의 초국가적 영역에서 물리적·지적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의 외교전략 다변화에 선행경험을 제공한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중대하는 인적·문화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역사 및 영토 문제에 있어 갈등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갈등요인을 관리하면서 일본과 양자간, 다자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에 중대한 과제이다.

EAI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적 성장과 관련하여 일본이 갖는 중대성을 인식하여 2008년 8월에 일본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EAI 일본연구센터는 일본의 대외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대일정책 대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전문가 및 싱크탱크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일 양국간 이해신장과 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원덕 일본연구센터 소장

“자민당 정부 하에서 추구되었던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은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 나름의 교육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의 문제를 내세우는 한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광역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주창을 통해 중국 견제를 시도하였던 기존의 입장이 하토야마 정부 하에서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다른 새로운 발상과 전략이 나올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성공하려면 통상, 투자, 개발원조, 환경 등 기능적 영역에서 역내 연결망을 일찌감치부터 구축해 왔던 일본이 왜 동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공고하게 구축할 수 없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이숙중·이원덕, [EAI 논평 제4호] 글로벌 시대의 한일관계, 2009.10.15)



한상일 일본연구패널 위원장

일본연구패널

- 위원장
한상일 국민대
- 위원
김기석 강원대
김상준 연세대
남기정 서울대
박영준 국방대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이원덕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
국민대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한국민주주의가 시민사회에 그 뿌리를 확고히 내리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을 복원하여야 한다.
한편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일은 한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관문이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의 활동은
집권 5년간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는 정책기조를 만들고,
청사진을 그려야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능력도 국가선진화의 주요 요소이지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 그리고 명예를 가진
한국사회의 지도층이 국민의 믿음을 받는 '신뢰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공질서의 틀 안에서 반대의 권리를 행사하고 공익을 존중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책임있는 사회'도 필요하다.

Democracy
and
Governance

한국의 중산층 연구

우리사회 중산층은 경제의 활력을 좌우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화되고 있던 한국의 중산층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맞고 있다. EAI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 중산층이 겪고 있는 위기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중산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사회 중산층 변동전망과 대책” 연구를 진행하였다.

EAI 중산층 연구팀은 한국의 중산층 약화를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세계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가족 구성의 변화로 발생하는 한국의 구조적인 위험요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장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EAI 중산층 연구팀은 중산층 약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후 대증요법이나 수동적인 완화 정책 대신 개인과 사회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정부의 중산층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2009년 3월 23일 제4차 미래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제4차 미래기획위원회 회의(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사회보험 수혜자가 되기에는 일자리가 변변치 않은 한계중산층(중위소득의 50%에서 70% 사이 213만가구)과,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기에는 근로소득이나 적은 자산이 있는 차상위 빈곤층(최저생계비 이상 소득과 중위소득 50% 사이의 84만가구)이 특히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휴먼뉴딜’ 기본 정책방향은 한계중산층의 빈곤층 전략을 막고, 차상위 빈곤층의 탈빈곤화를 지원하여 중산층 진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더하고 있다. . . . 그렇지만 중산층 탈락 방지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소득을 가져오는 일자리 유지이며,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이 빈곤해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숙중, 서울신문, 2009. 4. 1)



이재열 서울대 교수

참여연구자

- 중산층 연구팀
 -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 강원택 송실대
 - 김대일 서울대
 - 남은영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 이곤수 EAI 선임연구원
 - 이재열 서울대
 -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 자문
 - 강석훈 성신여대
 - 이흥규 한국정보통신대

집회시위로 본 한국 민주화

집회시위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참여정치는 책임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익을 고려하는 책임의식 없이 행사되는 권리는 권리 그 자체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EAI는 참여의 원칙과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일조하고 책임 있는 정치참여를 주창하기 위하여 1987년 1월 이후에 중앙일간지와 주간지를 통해 보도된 모든 시위를 통계적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2005년의 제1차 연구에 이어 진행된 2008년의 제2차 연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집단적 시위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과를 중앙일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연구의 최종목표는 영문단행본을 발간하는 것이다.

- 연구기획 : EAI · Center for European Studies in Harvard University
- 후원기관 : 중앙일보 · 한국학술진흥재단



김선혁 고려대 교수

2008년도 제2차 연구 주요 결과

-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가두시위 비중 감소
-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과 촛불집회 등 2002년 가두집회의 비중이 72.8%로 급상승
- 노무현 정부 시기, 시위 중에서 가두집회나 가두시위가 차지한 비율이 평균 75.2%
- 고학력 층이 시위를 주도, 소외계층은 무관심



“한국 정치에서 집회·시위가 차지하는 위치는 남다르다. 대중 동원은 한국에서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규모 집회·시위의 경험이 ‘주역’이 되어버린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대중 동원의 신화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형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양태와 방식에 의미심장한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 거리시위가 늘고, 시위의 주체가 변하고, 제도 정치에서의 불평등은 비통상적 시위 정치에도 재생산된다. 정치적 성격의 대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대규모·장기·불법 시위가 유효하다는 것이 ‘근거 있는’ 속설이며, 조정과 협상은 여전히 부족하다”(김선혁 중앙일보, 2008. 7. 24)

참여연구자

- 한국
 -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 김선혁 고려대
 - 신영환 EAI 선임연구원
 -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 대만
 - Yun-han Chu
 - Academia Sinica
 - Chin-en Wu
 - Academia Sinica
- 폴란드
 - Grzegorz Ekiert
 - Harvard University
 - Jan Kubik Rutgers University
- 헝가리
 - Bela Greskovits
 - Central European University
 - Jason Wittenberg
 - UC, Berkeley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EAI는 2002년 발족한 첫 해부터 성공한 대통령의 사례를 만드는 일 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었다. 연구결과 5년 대통령 단임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직 인수 과정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로 직결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인수위의 활동은 비록 두 달여 동안 제한되어 있지만, 신임 대통령에게 이 기간은 집권 5년간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는 정책 기조를 만들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기구 그리고 이를 책임질 사람을 결정하며 차기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중차대한 기간이다.

EAI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둔 8월 대통령직 인수위 연구팀을 구성하고 내부 세미나와 전직 인수위 참여인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단행본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으로 발간함과 동시에 중앙일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 후원 : 중앙일보



경험자들이 말하는 인수위 5계명

- ①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 ② 과욕은 금물
- ③ 정치 아닌 통치를 하라.
- ④ 공약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 ⑤ 한풀이식 인수위 활동은 피해야

• 자료 : 중앙일보, 2007. 12. 21

참여연구자

- 연구위원
강원택 송실대
이홍규 한국정보통신대
임성호 경희대
정진영 경희대
- 감수위원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박세일 서울대
최병선 서울대
- 세미나 초청 인사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철언 전 정무장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 실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종찬 전 국무원 원장
임혁백 전 인수위 행정개혁실장
전병민 전 정책기획 수석
- 간사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역대 정권 인수 담당자 6인의 조언

※원칙: 단은 여당이 인수 임무를 맡을 때 대담한 발언자



박철언씨

(노태우) "대부분 지지층은 상당한 보상을 기대한다. 기대심리를 채워줄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

남재희씨

(노태우-김영삼) "관료집단에 대한 견제력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집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병민씨

(김영삼) "강아냥 개 표를 의식한 현안주장이 많다. 비현실적 공약은 이 시기에 과감히 없애는 게 좋다."



이종찬씨

(김대중) "정권을 양양한 뒤 조직 개편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개혁은 임기 1개월 이내 해야 한다."



이광재씨

(노무현) "반반 정권의 잘못을 가리고, 정치 논리가 아닌 국민의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종석씨

(노무현) "초기 인사를 측근에게만 맡기지 말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세계화와 국가전략

세계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매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세계화는 국제질서는 물론, 국가와 개인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제도와 구조 그리고 운영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EAI는 세계화 담론이 국내에 소개된 이래 세계화가 한 국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21세기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아젠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2008년 6월 세계화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세계화라는 도전과 기회에 맞설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전략적 원칙들을 마련하고 각 아젠다별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장 훈 세계화 연구팀 위원장

참여연구자

장 훈 위원장 · 중앙대
강석훈 성신여대
권순만 서울대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이승주 중앙대
이재승 고려대
이철우 연세대
장덕진 서울대
전재성 EAI MASI센터 소장
서울대
이곤수 EAI 선임연구원

가치와 윤리 연구



곽준혁 가치와 윤리센터 소장

상속된 책임성 연구팀

곽준혁 EAI 가치와 윤리센터 소장
고려대
김희강 고려대
이나영 중앙대
Farid Abdel-Nour
San Diego State University
Daniel Butt University of Bristol
Yinan He Seton Hall University
Catherine Lu McGill University
Melissa Nobles MIT
Naoyuki Umemori Waseda University
Ernesto Verdeja Notre Dame University
Rwei-ren Wu Institute of Taiwan History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위한 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하다. EAI는 이러한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와 조정 원칙을 제시하고자 2009년 10월에 가치와 윤리센터를 설립하였다.

EAI 가치와 윤리센터는 가치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학문과 정책영역 간을 접목시켜 상호 연결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정의, 지역협력, 지구적 윤리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와 민주적 리더십을 포함한 총 9개의 연구의제를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 나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평택 : 미래 한미동맹의 상징

주한미군의 재배치사업과 기지이전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조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유도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 수행을 촉진시키는 지렛대가 된다. 미국의 동북아전략 핵심축으로서 미군의 허브기지가 될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의 성공은 미래 한미동맹의 핵심 사업이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안정적인 한미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평택시가 단순한 기지도시를 넘어 글로벌 시티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EAI는 2008년 2월부터 국가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인 평택시의 글로벌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과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안보, 국방, 도시개발, 국제무역, 중국연구, 교육, 도시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커뮤니티로 뉴평택 포럼을 운영, 2009년 11월 현재 총 9차례 개최되었다.

미래 한미동맹의 상징 도시가 될 평택시는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실험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EAI와 평택시는 평택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전략과 정책을 토론하고 공론화하



기 위해 '평택미래전략대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제1회 평택미래전략 대토론회에서는 평택시의 교육 국제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평택시 교육관련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평택시 글로벌화 전략 보고서

- 평택시 장기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축 방안(2008년 8월)
미군기지이전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고 있는 평택시의 지역개발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추진 체계의 구축방안 제시
연구진 :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김근세 성균관대, 전영평 대구대, 이곤수 EAI
- 평택국제학교 설립 방안(2009년 11월)
평택시의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택시 특성에 맞는 국제학교 설립 방안 제시
연구진 : 김성기 협성대, 안미리 한양대, 하봉운 경기대, 이곤수 EAI



송명호 평택시장

참여연구자

- 위원장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 위원
남창희 인하대
민선식 EAI 이사, YBM Sisa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선승훈 EAI 이사, 선병원
정영록 서울대
한광야 동국대
- 평택시
송명호 시장
김영락 기획재정국장
손정호 프로젝트담당관
- 간사
이곤수 EAI 선임연구원

여론분석

여론은 미래의 전략적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자
민주화시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객관적 척도이다.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일회성 여론조사는 여론의 변화 추이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널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소프트파워 · 인권 · 강대국들에 대한 인식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Public
Opinion

국민의식으로 본 미래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복합동맹의 단계로 끌어올리려면 한미동맹이 짊어진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민의를 읽어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문적 지식을 쌓아온 지식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EAI는 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한미동맹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살피기 위해서이다.

한미 복합동맹과 경제협력

미래 한미 복합동맹은 군사안보적 동맹을 넘어서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 양국간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EAI가 2005년에 실시한 FDI 여론조사와 2006년의 한미FTA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군사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경제협력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의 안정된 국민지지기반 확보 필요

EAI의 주기적인 한미동맹 관련 안보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에 대한 여론추이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기보다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따라 부침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안보 불안은 약해지고 그 결과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반면, 북핵위기 등 한반도 안보가 불안해지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강화되는 실리적 안보의식을 보여준다. 정부와 정치권이 일시적 추이에 편승하여 반미와 친미를 오간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는 한미동맹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에 따라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한미동맹 여론조사

2009 EAI · 매일경제	긴급 정치안보의식 조사
2009 EAI · 중앙일보	이명박 정부 취임1주년 경제 · 안보문제 여론조사
2009 EAI · 중앙선데이 · 한국리서치	10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2006 EAI · 한국일보	정치안보의식조사
2006 EAI · 미디어다음	정치안보 전문가 및 경제전문가 한미관계 인식조사
2006 EAI · 매일경제	경제 · 경영학자 한미FTA 조사

미국의 국제적 역할 관련 국제여론조사

2009 BBC · EAI · 한국리서치	30개국 국제현안조사
WPO · EAI · 매일경제	20개국 국제대외인식조사
2008 BBC · EAI · 매일경제	34개국 국제현안조사
WPO · EAI · 경향신문	22개국 국제여론조사
2007 BBC · EAI · 매일경제	27개국 국제현안조사



이내영 여론분석센터 소장

참여연구자

강원택	송실대
김민전	경희대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김태현	중앙대
남궁곤	이화여대
민병원	서울산업대
이근수	EAI 선임연구원
이근	서울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이상협	EAI 연구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이시영	중앙대
이재열	서울대
이태환	세종연구소
장진호	연세대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최영중	가톨릭대
한준	연세대

동아시아 소프트파워 국제여론조사

EAI는 미국의 시카고국제문제협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와 함께 2008년 세계 최초로 한국·미국·중국·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동일한 질문항목을 가지고 소프트파워에 대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각국의 소프트파워를 정치·외교·인적자본·경제·문화 영역별로 구분하여 주변국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야별 지수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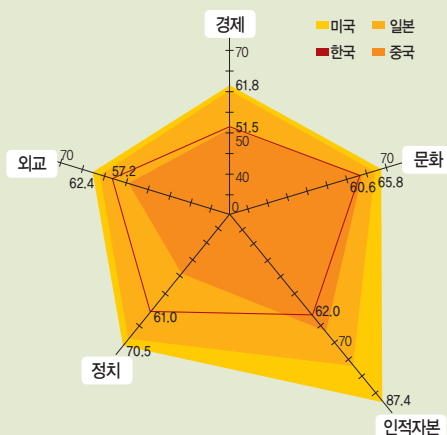
- 공동연구 : EAI · CCGA
- 지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 중앙일보

한국 속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이 '매력국가'가 되려면 국경을 뛰어 넘어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한국적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매력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은 한국적 가치를 세계화하고 세계적 가치를 한국화하는 문화예술계·학계·재계 그리고 국민이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되었으나 아직 미국·일본에 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요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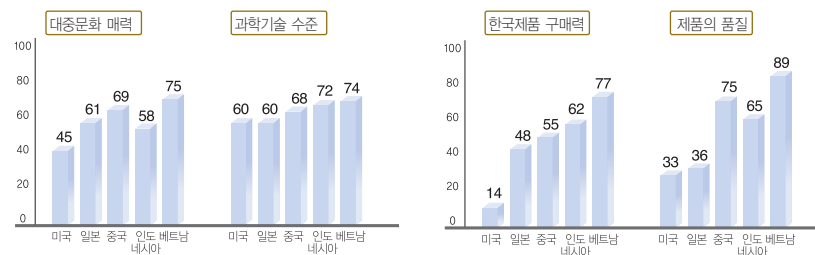
2008년 소프트 파워 국제여론조사 한국관련 주요 결과

- 정치외교 : 외부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나 한국인 스스로는 냉소적이다.
- 경제 : 해외 한국제품의 브랜드 가치는 기대에 못 미치며 FTA 상대국으로서 매력 이 미흡하다.
- 문화 : '한류'의 힘은 주로 중국과 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만 발휘되고 미국인은 별 매력을 못 느낀다.
- 인적자원 : 외국인들은 한국 노동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한다.



'한국 대중문화 및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100점 만점



참여연구자

이수종 EAI 원장, 성균관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이신화 고려대
 이용욱 고려대
 지병근 조선대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Marshall M. Bouton CCGA
 Steven Kull Maryland University
 Benjamin I. Page
 Northwestern University
 David Shambaugh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Catherine Hug CCGA
 Christopher B. Whitney
 CCGA
 Jennie Taylor CCGA
 Silvia Veltcheva CCGA

선거패널조사

한국에서 선거여론조사는 매년 다른 응답자 표본을 조사해서 유권자의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일회성 조사로는 유권자의 태도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 실시된 일회성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변화의 추이를 가늠하고 그 원인을 유추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하였다. EAI 여론분석센터는 더 이상 민심을 부정확한 유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동일한 응답자 표본을 여러 시점에 반복해서 조사하는 패널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패널조사는 여러 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건과 이슈가 어떻게 응답자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후원기관 : 중앙일보 · SBS

2006 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

EAI 여론분석센터는 한국에서 선거여론 조사로는 최초로 2006년 지방선거 기간인 4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서울 · 부산 · 광주 · 충남지역에서 4회, 그리고 전국 차원에서 2회의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 대선 패널여론조사

EAI는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함께 17대 대통령선거 패널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모집된 3,500명의 대규모 패널을 대상으로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장장 8개월에 걸쳐 총 6차례의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일보와 SBS를 통해 발표하였다.

2008 총선 패널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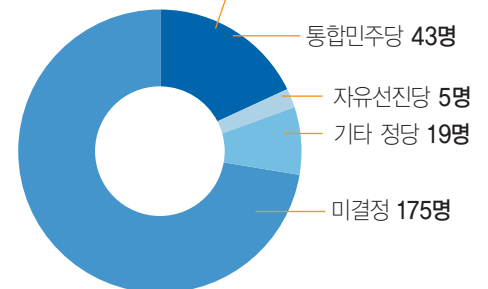
EAI는 여론분석센터는 2007년 대선 패널조사시 6차까지 참여했던 2000여명의 대선패널 중에서 유권자의 성 · 연령 · 지역 분포 비례에 맞춰 총선패널을 재구축하고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대선에서 총선까지 유권자의 여론변화를 추적하였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는 중앙일보와 SBS를 통해 보도되었다.

참여연구자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강원택 송실대
권혁웅 고려대
김민전 경희대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김장수 고려대 평화연구소
김성태 고려대
박찬욱 서울대
서현진 성신여대
유성진 이화여대 BK21
이현우 서강대
임성학 서울시립대
진영재 연세대
신창운 중앙일보
현경보 SBS
김준석 한국리서치
박종선 한국리서치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이명박 찍은 666명 어디로

- 총선 한나라 지지 424명(63.7%)
- 한나라 지지 철회 242명(36.3%)



『EAI · 중앙일보 · SBS 공동』 패널조사에서 MB 지지층 3명 중 1명 이탈이 보도된 뒤 정치권은 술렁였다. 같은 대상자에게 시차를 두고 같은 질문을 하는 패널 조사 방식의 신뢰성 때문이었다. '범람하는 총선 관련 여론 조사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였다. (중앙일보 2008. 3. 24)

정책 · 이슈 여론조사

EAI · 한국리서치 정기여론조사

주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주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EAI 여론분석센터와 한국리서치는 2009년 2월부터 매월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 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여론동향을 발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이 보다 민주적이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회적으로 다른 목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사결과는 <EAI 여론브리핑>시리즈로 발간하고 있으며, 중앙선데이를 통해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 · 경영학자 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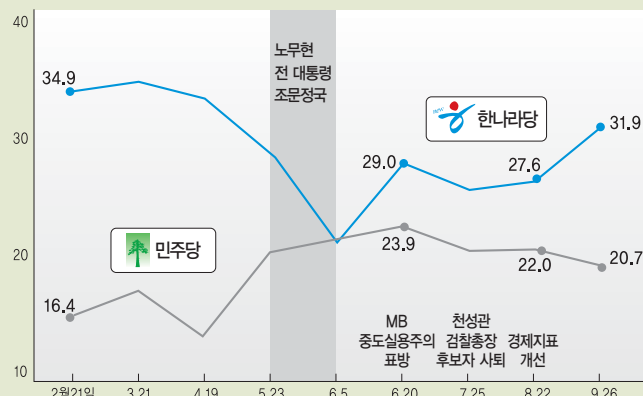
EAI 여론분석센터는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2005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 · 경영학자 100명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매년 1~2회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까지 총 여섯 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명박정부 1년 평가 여론조사

EAI 여론분석센터는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에 맞춰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 취임1주년 평가 및 경제 · 안보문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세계경제위기 심화와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2년을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함께 경제와 안보상황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살피고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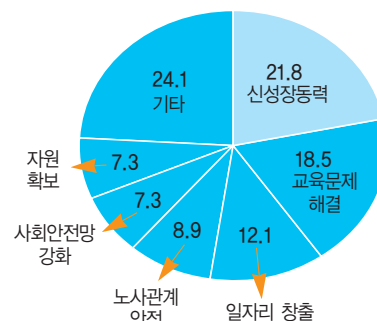
조사결과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정치신뢰회복을 우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는 중앙일보 2009년 2월 23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되었다.

주요 정당 지지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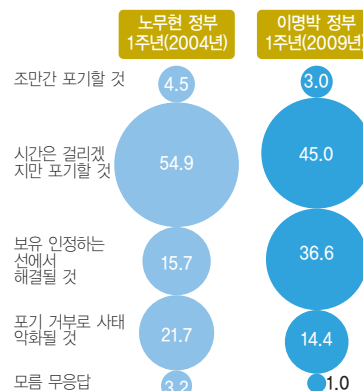


· 자료 : EAI·한국리서치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는?



■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 단위%



중산층 의식 조사

중산층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때문이다. 중산층 위기는 경제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되고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보호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호로 이어질 수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약화시키는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EAI는 중산층대책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중앙일보의 후원 하에 "2009년 국민 계층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의 중산층은 객관적 중산층에 비해 주관적 중산층의 비중이 낮고 중산층 중에서도 핵심 중산층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한계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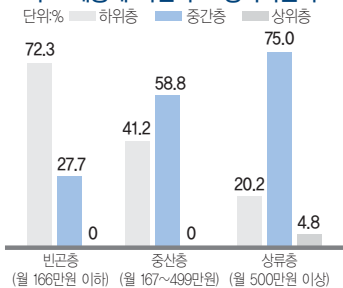
EAI 연구팀의 정책제언

-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정책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
-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고 국민연금 내실화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하는 정책 필요
-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함께 한국경제가 지속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확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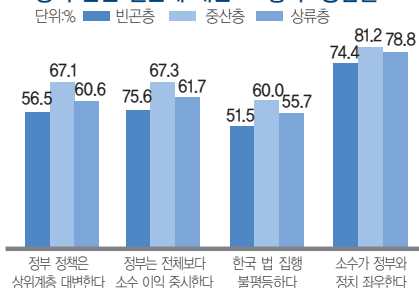
국민계층의식 조사 연구팀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강석훈 성신여대
강원택 숭실대
구인회 서울대
권혁주 서울대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이곤수 EAI 선임연구원
이재열 서울대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최강식 연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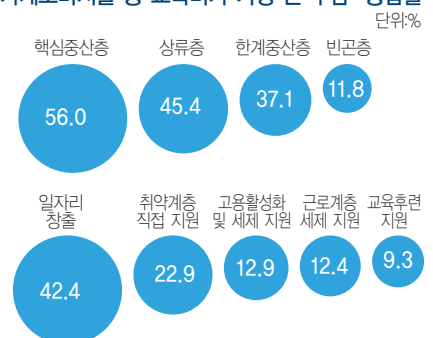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정치 관련 질문에 대한 "그렇다" 응답률



"가계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 응답률



• 자료 : 중앙일보 2009.9.22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정부는 나라를 이끌고 국민은 정부정책을 따른다는 통치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세계화·정보화·민주화라는 삼중 변환의 시대에는 어느 나라든 권력분산이 대세이다. 재계에서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가 권력과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공통의 이익을 함께 구현해야 하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수직적 통치의 개념을 대신하여 정치의 핵심적 구성·운영원리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권력주체가 아직은 수평적 거버넌스의 이상에 다가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EAI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각 권력주체의 자기개혁을 장려하기 위하여 25개 파워기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매년 여론조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

참여연구자

강원택 숭실대

신창운 중앙일보

이현우 서강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양홍석 EAI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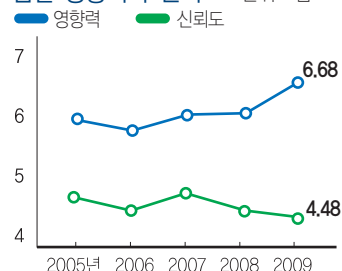
조사대상 기관

- 기업 :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전국경제인연합회
- 정부 :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2008~) 선거관리위원회(2007)
- 정당 : 통합민주당(전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2008~), 민주당(2006~2007)
- 사법 :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노동 : 한국노총, 민주노총
- 교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시민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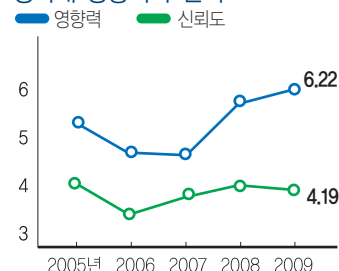
2009년 조사 주요 결과

- 검찰과 청와대의 영향력은 2008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 국세청의 영향력은 다소 낮아졌다.
- 주요 대기업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최상위로 평가됐다.
- 검찰과 청와대 등 전통적 권력기관은 2008년에 비해 영향력이 높아진 반면 신뢰도는 하락했다.
- 주요 정당의 신뢰도는 최하위인 25위와 24위로 추락했다.

검찰 영향력과 신뢰도 단위 : 점



청와대 영향력과 신뢰도



파워조직 영향력 및 신뢰도 순위

영향력				신뢰도			
2009년		2008		2009년		2008	
순위	조직	점수	순위	순위	조직	점수	순위
1	삼성	7.00	1	1	현대차	6.58	1
2	현대차	6.91	2	2	SK	6.41	2
3	SK	6.70	3	3	삼성	6.09	4
4	검찰	6.68	6	4	LG	5.84	3
5	헌법재판소	6.65	5	5	헌법재판소	5.71	5
6	청와대	6.22	9	6	대법원	5.16	6
7	LG	6.21	4	7	감사원	4.97	7
8	대법원	6.19	7	8	전경련	4.79	10
9	경찰	6.18	10	9	국세청	4.75	8
10	국세청	6.09	8	10	경찰	4.67	9
11	감사원	5.98	11	11	민변	4.64	12
12	전경련	5.74	13	12	검찰	4.84	12
13	한나라당	5.34	12	13	한국교총	4.42	15
14	국정원	5.23	14	14	전교조	4.39	16
15	한국교총	4.93	16	15	참여연대	4.23	11
16	전교조	4.91	15	16	국정원	4.21	18
17	민변	4.71	18	17	청와대	4.19	17
18	경실련	4.48	17	18	경실련	4.07	14
19	참여연대	4.34	18	19	민주노동당	3.93	24
20	뉴라이트	4.31	23	20	자유선진당	3.77	25
21	한국노총	4.25	20	21	뉴라이트	3.71	23
22	민주당	4.25	22	22	한국노총	3.67	19
23	민주노총	4.24	21	23	민주노총	3.67	20
24	민주노동당	4.02	24	24	민주당	3.65	22
25	자유선진당	3.83	25	25	한나라당	3.62	21

표 읽는 법 : 10점 만점의 평균값으로 순위를 매겼지만, 두 조직의 점수 차이가 0.15점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로 순위 의미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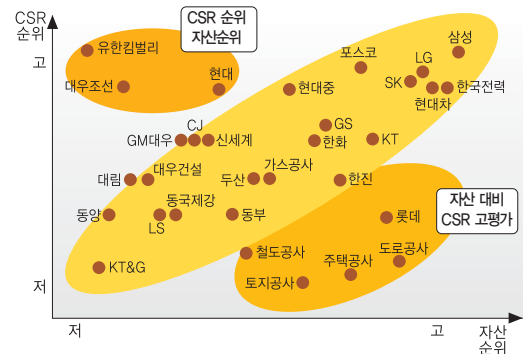
국제여론조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여론 조사

기업이 혁신과 변화의 주역이 되는 '시장의 시대' 라고 한다. 그러나 기업이 시대의 주인으로 떠오를수록 기업에 대해 사회의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확대되는 것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그 힘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이다.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는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EAI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고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으며 국제여론 조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국 국민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기업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 협력기관 : GlobeScan · 한국리서치

자산순위 대비 C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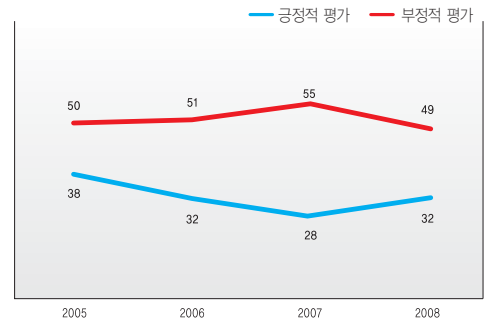
국제현안조사

세계화 · 정보화 시대 각 국가의 외교정책은 곧바로 세계인의 평가 대상이 되고 세계여론이 형성된다. 21세기 외교무대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힘,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세계여론이다. 어느 국가든 국익실현 과정에서 세계여론을 무시하고 정책결정을 하기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EAI는 BBC가 주관하고, 국제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GlobeScan) 및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공공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총괄기획하는 국제여론조사 콘소시엄에 참여하여 국제 현안과 관련된 세계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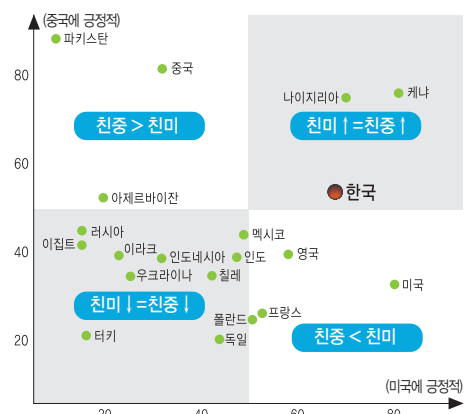
EAI는 세계 인권의식 현황과 주요 국제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에 한국 측 주관기관으로도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인권신장에 대한 국가간 인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협력기관 : 유엔고등판무관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한국리서치 · BBC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2005~2008)



미국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교육과 인재개발

정당이 이상을 꿈꾸고 관료가 그 실천에 나선다는
 막스 베버식의 이분법적 분업체계는
민주화·세계화·정보화의 변환시대에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이제는 정치·경제·행정·국제관계의 다양한 세계를 넘나들면서
 스스로 이상과 실천의 문제를 서로 연결시켜 해결하는
 통섭(統攝)의 리더가 정책의 중앙에 서야 한다.
정계·관계·재계·학계의 인재가 모여 국가 아젠다를 함께 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싱크탱크가 있어야 가능하다.
EAI는 그러한 통섭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식 네트워크의 허브, EAI

변환의 시대에 지식은 가장 큰 자원이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장악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가 흐르는 길목에 서 있고 소통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자 목적지는 냉철한 안목과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읽고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미국의 헨리루스재단(Henry Luce Foundation)은 동아시아 지역학이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EAI는 헨리루스재단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아 2005년 12월부터 북미 정치학계의 중진 교수와 석학 중에서 매년 5~6명의 EAI 펠로우를 선발한다. EAI 펠로우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발전과 민주화”라는 주제로 대중강연 및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를 서울·북경·상해·동경·타이페이에서 개최한다. 강연 시리즈는 네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지역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만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는 이론을 생산하고 그 이론 위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학제간 연구의 학풍을 만들어 낸다.
- ◎ 북미 정치학계를 이끄는 중진 교수와 석학의 방문 강연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젊은이가 첨단 사회과학 이론을 배우고 역사학적 통찰력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 정치학계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 ◎ 북미정치학계의 중진교수와 석학을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 및 연구기관과 연결시킴으로써 북미정치학계 내의 동아시아 연구를 활성화한다.
- ◎ 한 국가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지역학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교연구를 장려한다.

• 후원 : 헨리루스재단 · 장경국재단(대만)



EAI 글로벌 아카데미

EAI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국의 대학교육과 경쟁하고자 한다. 유학을 가지 않아도 세계적 석학의 아이디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EAI 글로벌 아카데미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쌍방향의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는 30명의 정치학·국제관계학 전공학생이 그 대상이다.



2009년도 EAI 글로벌 아카데미 수료자

곽은진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김기현 고려대
 김은수 단국대
 김형관 연세대
 박로사 중앙대
 서현지 Northumbria University at Newcastle
 강정민 연세대
 석하림 이화여대
 심여울 성균관대
 엄혜영 서울시립대
 이낸시 경희대
 이명은 연세대
 이진원 고려대
 이창윤 영남대
 전수민 이화여대
 정상원 인천대
 차현지 이화여대
 하동영 고려대

2008년 EAI 글로벌 아카데미 수료자

Lisa Collins 고려대
 Matthew Lauer 고려대
 김경진 연세대
 김다운 서울대
 김정민 중앙대
 노시내 서울대
 박고은 연세대
 우혜영 이화여대
 윤대진 서강대
 이다영 연세대
 이정애 경희대
 정선영 연세대
 정성훈 고려대
 정유진 이화여대
 조상호 연세대
 최성인 이화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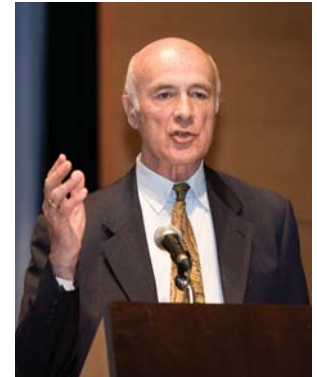


강연회

소프트파워 강연회

주변 군사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소프트파워가 강한 ‘매력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소프트파워가 가지는 힘 그리고 그 중요성을 자라나는 학생과 모든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EAI는 세계적인 외교안보 권위자이고 한평생 소프트파워의 실체에 대한 연구에 전념해 온 조셉 나이(Joseph S. Nye)를 초청하여 학생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Smart Power and the War on Terror”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날 강연회에는 300명이 넘는 국내외 학생 및 전문가들이 조셉 나이의 강연을 경청하고 한국 소프트파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토론하였다.

• 주최 : EAI · Korea Foundation



한미동맹 강연회

EAI는 미래의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 양국간 관계가 강화되고 협력이 증진되는 포괄적 동맹으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북합동맹으로의 변환은 그 필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간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에 EAI는 미국의 변환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중심 주둔도시가 될 평택시의 후원을 받아 매년 한미동맹 강연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강연자로는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를 초청하며,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에서 강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제1회 한미동맹 강연회

주 제 : 변환시대의 새로운 한미동맹

미국연사 : **잭 크라우치** Southwest Missouri State University 교수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부보좌관

한국연사 :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전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

◎ 제2회 한미동맹 강연회

주 제 : 북합동맹을 향하여

미국연사 :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교수

한국연사 : **하영선** EAI 지구넷21 회장, 서울대 교수

◎ 제3회 한미동맹 강연회

주 제 :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동맹

미국연사 : **토마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 교수, 전 미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한국연사 : **김병국** 고려대 교수, 전 외교안보수석



글로벌 리더 육성

EAI는 미래 한국을 이끌고 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기능을 겸하고 있다.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이론과 실천을 늘 고민하는 청년이 한국의 미래”라는 인식 하에 덕(德)과 지(智)를 갖춘, 실천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霸氣) 있는 차세대 리더의 꿈을 키우는 산실이 되고자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

EAI는 2004년 8월부터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150여명의 우수한 인재가 EAI의 학술·정책·포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 인턴은 연구의 기획에서부터 전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EAI의 보배이다.



크라운스 국제인턴

2007년부터 UCS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는 매년 여름방학 동안 크라운스 국제인턴을 선정하여 EAI에 파견한다. EAI는 이들을 차세대 지한파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한다.



제1회 인턴 홈커밍데이 개최

EAI는 2009년 8월 17일, 함께 했던 인턴을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EAI 출신 인턴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42명의 참가한 이 날 행사는 “EAI의 미래, 바로 여러분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감하게 하는 자리였다.

EAI 인턴명단

Lisa Collins University of Hawaii
 Matthew Lauer University of Hawaii
 Jasmine Begin McGill University
 Michael Price UCSD
 강경준 동국대
 강범화 University of Washington
 강은혜 연세대
 강지민 University of Hawaii, Manoa
 강지수 숙명여대
 공연희 한국외국어대
 곽소희 이화여대
 구미경 성균관대
 권석필 성신여대
 권혜연 포항공대
 김규연 중국 청화대
 김나리 서울대
 김다선 Syracuse University
 김대경 Brown University
 김동은 연세대
 김미주 북경대
 김성은 고려대
 김성은 아주대
 김성희 연세대
 김세아 홍익대
 김소정 연세대
 김송은 서울대
 김수진 이화여대
 김아람 고려대
 김예린 성균관대
 김은하 Georgetown University
 김종승 한국외국어대
 김주영 경희대
 김주는 University of Hawaii
 김진 서울대
 김진곤 연세대
 김태희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김학선 고려대
 남궁선 University of Hawaii, Manoa
 노유연 이화여대
 노혜수 Shanghai American School
 로빈정 연세대
 민인영 연세대
 박경호 한국외국어대
 박규령 고려대
 박동욱 University of Toronto
 박성은 서울대
 박은진 Northwestern University
 박정훈 서강대
 박하나 서울대
 배성렬 연세대
 배지혜 New York University
 변해진 연세대
 손형탁 University of Texas

송민정 Acadia University
 송민정 St. Mark's Church of England School
 송수정 Brown University
 송영옥 포항공대
 송인근 서울대
 송인영 Carnegie Mellon University
 신민영 동국대
 신지연 이화여대
 신지현 서울대
 심우석 University of Warwick
 안미미 University of Sydney
 안주영 연세대
 양홍석 Harvard University
 여현정 연세대
 오현지 Emory University
 우혜영 이화여대
 유정선 이화여대
 윤경화 Columbia University
 윤다미 연세대
 윤문영 서울대
 윤상원 New York University
 윤정원 연세대
 이경아 중앙대
 이경하 서울대
 이계성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이계성 연세대
 이고은 서울대
 이기원 Johns Hopkins University
 이나래 단국대
 이나는 Georgetown University
 이보람 연세대
 이상연 와세다대
 이선경 연세대
 이선정 동국대
 이승준 성균관대
 이승현 이화여대
 이승훈 고려대
 이유리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이유리 고려대
 이유정 Boston University
 이윤아 이화여대
 이윤진 Harvard University
 이은미 연세대
 이은영 연세대
 이재윤 Hamilton College
 이종구 서울대
 이지원 University of Hawaii, Manoa
 이진아 Wellesley College
 이진아 경희대
 이진우 서울대
 임다영 인하대
 임상은 고려대



임은혜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임찬종 서울대
 임효신 한국외국어대
 장선영 연세대
 장재원 아주대
 전수민 이화여대
 전정화 이화여대
 전하민 서울대
 정다정 고려대
 정모아 University of Toronto
 정승윤 숙명여대
 정애리나 서울대
 정주혜 서울대
 정지혜 연세대
 정찬일 University of Virginia
 조상녕 서울대
 조상호 연세대
 조승연 이화여대
 조윤경 서울대
 조정은 북경대
 조호경 연세대
 주민경 상해동제대
 진병남 북경대
 차소연 UCSD
 최수연 이화여대
 최윤선 Princeton University
 최정욱 서울대
 최지윤 Brandeis University
 허경주 서울대
 허윤선 서울대
 허지범 State University of NY-Stony Brook
 허찬범 UC Berkeley
 홍세중 Wesleyan University
 홍인정 고려대
 황선희 고려대
 황성준 서울대

Forum and Conference

포럼과 컨퍼런스

아이디어의 주인은
아이디어를 생산한 사람이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EAI는 자신의 정책적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정계 · 관계 · 재계 ·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포럼과 컨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한미동맹 컨퍼런스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자동맹 중 하나이다. 21세기 변환의 시대에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새로운 비전과 성격을 갖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억지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포괄적이며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동맹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분야 등 전방위적 동맹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될 도시인 평택시를 통해 발현될 것이며, 평택시는 새로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에 EAI는 2008년부터 평택시의 후원을 받아 “21세기 한미동맹과 평택시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 후원 : 평택시

New Era, New Korea-US Alliance

2008년 7월 3일 개최된 제1회 한미동맹 컨퍼런스는 “변환시대의 새로운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학자와 국회의원 그리고 주한미군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 Larry A. Niksch “New Vision of Korea-US Alliance”
- Gi-Wook Shin “The Future of U.S.-ROK Relations”
- Sung-han Kim “ROK-U.S.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 Jaeho Chung “Korea-US Alliance Transformation and Pyeongtaek”

발표

Larry Niksch CRS of
the Library of Congress, US
신기욱 스탠포드대
김성한 고려대
정재호 EAI 선임연구원

토론

이홍구 EAI 이사장, 전 국무총리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문정인 연세대
Ralph Cossa
Pacific Forum CSIS
Jack Crouch Former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Walter Sharp Commander UNC
Alexander Vershbow
US Ambassador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2008년 11월 17일에 열린 제2회 한미동맹 컨퍼런스는 평택시를 미군 주둔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내외 군사도시 전문가들이 독일과 일본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과거 한국의 군사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평택시가 국제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Kent Calder "Embattled Garrisons"
- Alexander Cooly "The Emerging Base Politics of Pyeongtaek: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 Jurgen Nehmer "Coexistence of Civil and Military Societies"
- Chang-hee Nam "Relocating US Forces in Japan and the Base Relations"
- Yeongmi Yun "New Model of Pyeongtaek for Peace and Prosperity"



An ROK-US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2009년 11월 3일에 개최된 제3회 한미동맹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세계질서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미국·중국·일본·한국의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동아시아지역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다자주의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를 전망하였다.

Alliance System and Comprehensive Security in East Asia

- Victor Cha "US Perspective"
- Qingguo Jia "Chinese Perspective"
- Yoshihide Soeya "Japanese Perspective"
- Chae-Sung Chun "Korean Perspective"

Multilateralism: A Substitute or a Supplement?

- Shulong Chu "New Emerging Security Arrangements in East Asia"
- Young Wook Lee "Security Implications of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 Min Gyo Koo "Security Implications of Trade Arrangements in East Asia"

발표

Kent Calder

Johns Hopkins University

Alexander Cooly Barnard

Columbia University

Jurgen Nehmer

University of Kaiserslautern

남창희 인하대

윤영미 평택대

토론

이흥구 EAI 이사장, 전 국무총리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원유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명호 평택시장

Ralph Cossa

Pacific Forum CSIS

남기정 서울대

유용원 조선일보

유승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정종욱 전 주중대사

발표

Victor Cha Georgetown University

Qingguo Jia Peking University

Yoshihide Soeya Keio University

Shulong Chu

Tsinghua University

전재성 EAI MASI센터 소장, 서울대

이용욱 고려대

구민교 연세대

토론

구상찬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김창기 조선일보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박태호 서울대

송명호 평택시장

송영선 친박연대 국회의원

정상기 국제국립교육원

토마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

소프트파워 국제학술회의

변환의 시대에 누가 어떤 성격의 소프트파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각 국가가 구상하는 안보·번영 대전략이 얼마나 타국가의 지지를 받느냐부터 어느 국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심국가의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EAI는 변환시대에 소프트파워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해 2008년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입각해 같은 해 12월 “동아시아에서의 소프트파워, 정체성 그리고 공공외교”(Soft Power, Identity and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시카고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위기가 한국·중국·일본·미국의 소프트파워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두 차례의 걸친 소프트파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EAI는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소프트파워 이론을 심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 속에서의 각 국가 소프트파워의 현주소와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파워 경쟁전략이 동아시아 질서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공동주최 : EAI · CCGA • 후원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소프트파워 서울 회의 참가자

-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 이신화 고려대
- 이응옥 고려대
- 지병근 조선대
- Akiko Fukushima The Japan Foundation
- Benjamin Page Northwestern University
- Ingrid d'Hoogh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Jan Melissen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Marshall Bouton CCGA
- Peter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 Rizal Sukma CSIS, Jakarta
- Seiji Fujii Chuo University
- Takashi Inoguchi Chuo University
- Xie Tao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 Yun-Han Chu National Taiwan University
- Zhongying Pang Renmin University of China

소프트파워 시카고 회의 참가자

-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 박동선 국제경제협력 대사
-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 전재성 EAI MASI 센터 소장, 서울대
-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 한석희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연세대
- Douglas Bereuter Asia Foundation
- Marshall Bouton CCGA
- Rachel Bronson CCGA
- Steven Clemons New America Foundation
- Paula Dobriansky Harvard University
- Aaron Friedberg Princeton University
- Ellen Fros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Peter Geithner Harvard University
- Harry Harding University of Virginia
- Nobuhiro Hiwatari Tokyo University
- Paul Herman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 Mingjiang Li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Barry Lowenkron MacArthur Foundation
- Raja Moh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Jackie Newmyer Long Term Strategy Group
- William Overholt Harvard University
- Andrew Shearer Lowy Institute
- Yinhong Shi Renmin University of China
- Mathew Stumpf MacArthur Foundation
- Motohshi Suzuki Kyoto University
- Ashley Tellis Carnegie Endowment
- Thomas Wright CCGA
- Dali Yang Chicago University
- Xiaoming Zhang Peking University

EAI-JPI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EAI는 2009년 9월 제주평화연구원(JPI)과 “동아시아 평화와 남북 관계”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전개될 국제질서 변화 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 23명을 초청하여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

발표주제

- 이동선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와 전망”
- 이원덕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 이동률 “중국 2020 국가전략을 통한 미래 전망”



회의 참가자

- 이흥구 EAI 이사장, 전 국무총리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이원덕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
 국민대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대
 오 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이성우 JPI
 고봉준 JPI
 박준혁 EAI 가치윤리센터 소장
 고려대
 김상준 연세대
 남기정 서울대
 마상윤 가톨릭대
 박영준 국방대
 이동선 고려대
 이용욱 고려대
 이원덕 EAI 일본연구센터, 국민대
 이태환 세종연구소
 장 훈 중앙대
 전성훈 통일연구원
 전재성 EAI MASI센터 소장, 서울대
 조동호 이화여대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차두현 국방연구원
 한석희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연세대
 한태규 JPI 원장
 한인택 JPI
 황지환 명지대

소프트파워 현자회의



전통적인 군사력 및 경제력의 하드파워와 함께 국가적 위신과 품격을 결정하는 소프트파워는 국력의 원천이다. EAI는 2008년 2월 ‘소프트파워’가 우리의 새로운 외교전략과 비전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세계적 석학인 조셉 나이(Joseph S. Nye)교수와 한국, 대만, 미국, 일본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Soft Power in Northeast Asia”를 주제로 현자회의를 개최했다.

• 공동주최 : 한국국제교류재단 · EAI



참여인사

Jan Melissen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소

Joseph S. Nye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Barnett Baron 아시아재단 부총재
Chu Yun-han
대만 장경국재단 대표

Kazuo Ogoura
일본국제교류기금 이사장

Evans Rever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문정인 연세대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한승주 EAI 이사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신화 고려대

손 열 연세대

한미 Dialogue 21

EAI는 대한민국 국가회가 새로운 외교채널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미 Dialogue 21을 발족하였다. 한미 Dialogue 21에서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주한미대사관·주한미군·주한미상공회의소의 고위 인사들과 만나 국제적 이슈와 한미간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2004년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그 첫번째 포럼을 가진 이후 매년 2~3회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한미 Dialogue 21 참여인사(2007~2009)

• 국회의원

나경원	남경필	박진
박형준	원희룡	전여옥
황진하	김성희	이혜훈
고진화	김부겸	유재건
최성	이승희	이상경
채수찬	김종률	송영길
신낙균	심상정	

• EAI

이흥구	EAI 이사장 · 전 국무총리
한승주	EAI 이사 · 전 외무부 장관
신성호	서울대
손열	연세대
김병국	고려대 · 전 EAI 원장
이숙중	EAI 원장 · 성균관대
하영선	EAI 이사 · 서울대
김성한	고려대
김태현	중앙대
전재성	EAI MASI센터 소장
	서울대

• 미대사관

William Stanton	Patrick Linehan
Andrew Quinn	Kip McCormick
Robert Ogburn	Aaron Tarver
Brian McFeeters	Henry Haggard
Jeff Beller	Curt Tong
Alexander Vershbow	
Darrell A. Jenks	Dae B. Kim
Henry Haggard	Lloyd S. Harbert
John Fogarasi	
Charles A. Atkinson	

• 주한미군

David Sedney	Steven Park
Douglas Miller	Jane Crichton
Warren Switzer	
Stephen Sargeant	
Franklin Childress	
Kip A. McCormick	
Wayne Perry	

• 주한미상공회의소

Tami Overby



지구넷21

EAI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2004년 10월 전문가 모임인 EAI 지구넷21을 공식적으로 발족시켰다. EAI 지구넷21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전문가적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 정파적이고 범 이념적으로 회원을 구성하였다. EAI 지구넷21은 외교안보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광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현직 외교안보 정책결정자 및 국내외 학자를 초빙하여 정책·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EAI 지구넷21 주제와 발표

- ◎ 제13차 회의 2008년 3월 18일
주제 : "The Security-Economics Tradeoff in Asian Regionalism" (T.J. Pempel)
- ◎ 제14차 회의 2008년 4월 10일
주제 : "China's Rise: East Asia and Beyond" (Peter Katzenstein)
- ◎ 제15차 회의 2008년 11월 7일
주제 : 미 대선 후 미국 외교안보전략 변화 전망" (EAI 국가안보패널)
- ◎ 제16차 회의 2009년 6월 24일
주제 : North Korea Opens: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DPRK (Stephan Haggard)
- ◎ 제17차 회의 2009년 10월 28일
주제 : 통일부가 제안하는 북핵과 남북관계 해결 방안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인프라비전 포럼

EAI는 한국의 미래 정책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내 고위 정계·관계 인사를 모시고 국가 현안에 대한 인프라비전 포럼(InfraVision Forum)을 2007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제5회 포럼은 2009년 5월 21일 조현 에너지자원대사를 모시고 “동북아 통합의 가능성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 관련분야 학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2009년 11월 24일 열린 제6회 포럼에서는 박동선 외교통상부 경제협력대사를 모시고 ‘G-20’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참여인사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용욱 고려대
이재승 고려대
구민교 연세대
이승주 중앙대
구민교 연세대
이동선 고려대
손 열 연세대
정주연 고려대
최태욱 한림대
한석희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연세대

한호리더십 포럼

한국과 호주는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양국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중요한 무역파트너로서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호 양국간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EAI는 양국관계가 포괄적인 외교안보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AI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호주국립대(ANU)와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2008년부터 '한호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1회 한호 리더십 포럼은 캔버라에서 "Partnership for Prosperity"라는 주제로 2008년 10월 14~15일에 개최되었고, 제2회 포럼은 서울에서 "Middle Power Partnership and Cooperation"을 주제로 2009년 11월 5일~6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 후원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제1회 한호 리더십 포럼 참여인사

조 현 에너지자원 대사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김진현 EAI 이사, 세계평화포럼
김태환 한국국제교류재단
배명복 중앙일보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박웅서 UI 에너지
성국제 경희대
Hyung A Kim ANU
Simon Crean Minister for Trade
Paul Dibb ANU
Graham Fletche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llan Gyngell Lowy Institute
Michael L'Estrang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Bob Pegler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Heather Smith Office of National Assessments.
John Walker Macquarie Group of Companies
Hugh White ANU
Mack Willia Former Ambassador to Republic of Korea

제2회 한호 리더십 포럼 참여인사

이흥구 EAI 이사장, 전 국무총리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권해룡 외교통상부
배명복 중앙일보
정의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종훈 외교통상부
이상현 세종연구소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이은우 교육과학기술부

민선식 EAI 이사, YBM Sisa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태영 포스코 경영연구소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김영호 국방대학
주형환 재정경제부
박동선 외교통상부
박웅서 UI 에너지
선승훈 EAI 이사, 선병원

Peter Alford The Australian
Julie Bishop Shadow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Ian Chubb AC ANU
Tony Ellwood the Queensland Art Gallery
Michael Gallagher the Group of Eight
Michael Johnson Member of the Parliament of Australia

Hyung-A Kim ANU
Andrew MacIntyre ANU
Sean Rodrigues Australia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John Spence Macquarie and Samchully partner for energy funds
Will Steffen ANU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동북아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EAI는 중국의 북경대학교 국제전략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 Security Studies)와 공동으로 동북아 안보 관련 한국과 중국의 정책 방향과 전략적 목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동북아안보대화’ (Northeast Asian Security Dialogue : NASD)를 개최한다.

NASD는 한중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의 미래 외교 안보 엘리트를 교육하며,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협력의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제1회 NASD는 2008년 9월 28일 베이징에서 “North Korea: Is It Impeding Factor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제2회 포럼은 2009년 11월 22일 서울에서 “How to Enhanc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ver the Future of North Korea?”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1회 동북아안보대화 참가인사

• 전문가패널

정중욱 전 주중 한국대사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민선식 EAI 이사, YBM Sisa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전재성 EAI MASI센터 소장, 서울대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WANG Yingfan Ex-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ZHANG Tuosheng CFISS
CUI Liru CICIR
JIA Qingguo Peking University
ZHU Feng Peking University

• 학생포럼

김민성 고려대 김성은 고려대
이정석 서울대
LI Wei Peking University
ZHEN Jiyong Fudan University
WANG Yisheng PLA Military Science
Academy

제2회 동북아안보대화 참가인사

• 전문가패널

하영선 EAI 이사, 서울대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김병국 고려대, 전 EAI 원장
전재성 EAI MASI센터 소장 · 서울대
류우익 전 대통령실 실장, 서울대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민선식 EAI 이사, YBM Sisa
WANG Jisi Peking University
ZHU Feng Peking University
YU Tiejun Peking University
ZHANG Dongming Liaoning University
FAN Jishe CASS

• 학생포럼

이종구 서울대 윤대엽 연세대
한미현 연세대
LI Zhuo Peking University
MA Yan Peking University
GUO Yanjun Chinese University
of Foreign Affairs

출판

책에는 시대의 고민과 지식 그리고 지혜가 담겨져 있다.

EAI가 책을 출판하는 이유는

EAI의 아이디어를 우리 사회와 함께 나누며

EAI의 고민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미래세대가 책 안에 담긴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 차원 높은 지식과 지혜를 창조해 낼 수 있다.

EAI는 책을 통해 미래세대와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Publications

영문저널 JEAS

EAI는 동아시아 연구를 국가라는 소단위를 넘어서는 진정한 지역학으로 키운다는 비전 아래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JEAS)*를 매년 3회 간행하고 있다. EAI는 *JEAS*를 글로벌 기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세계적 학술지인 *World Politics*를 벤치마킹하고 그에 따라 조직과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 · 일본 · 대만 · 미국 · 호주의 대표적 정치학자 6인이 주간과 부주관을 맡고 34인의 세계적 학자가 국제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1인의 중견학자가 서평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출판사는 미국 소재의 Lynne Rienner Publishers이고 저널의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운영주관은 EAI의 신영환 연구원이다.



2008년 1월 *JEAS*는 국내 독립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저널로는 최초로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의 등재지로 선정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과학 영문저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JEAS*는 2009년 11월 현재 제9권 3호까지 출판하였다. *JEAS*는 2006년 12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심사를 통해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출판지원을 받고 있다.



Stephan Haggard 편집주간

JEAS 편집진

• 주간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부주간

Yun-han Chu Academia Sinica
Byung-Kook Kim Korea University
Xiaobo Lu Columbia University
Andrew MacInty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Yoshihide Soeya Keio University

• 서평주간

Yves Tiberghie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운영주간

Young-Hwan Shin EAI

국제편집위원회

Muthiah Alagappa East-West Center
Gordon de Brouw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Steve Chan University of Colorado
Beng Huat Chu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arry Diamond Hoover Institute
Emmanuel de Dio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Jorge I. Dominguez Harvard University
Peter Evan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ung-Joo Han Korea University
Szu-yin Ho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Paul D. Hutchcroft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Takashi Inoguchi University of Tokyo
Qingguo Jia Peking University
K. S. Jomo University of Malaysia
Ryosei Kokubun Keio University
Shin-wha Lee Korea University
Hyun-Ch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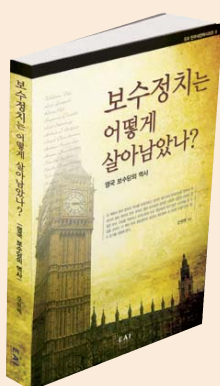
Linda Lim University of Michigan
Jongryn Mo Yonsei University
Andrew J. Nathan Columbia University
Greg W. Noble University of Tokyo
John S. Odel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 J. Pempe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enny Roy East-West Center
Gilbert Rozman Princeton University
Miranda A. Schreurs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Dingli Shen Fudan University
Jin-Young Suh Korea University
Akihiko Tanaka University of Tokyo
James T. H. Tang University of Hong Kong
Ezra F. Vogel Harvard University
Yizhou Wa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Meredith Woo-Cummings
University of Michigan
Yu-shan Wu Academia Sinica

단행본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 EAI 단행본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보수당의 역사》 강원택 (2008. 6)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회과학부문 2009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보수당의 역사를 통해 저자는 ‘보수정치가 어떻게 영국에서 살아남았을까’라는 처음 품었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았다. 저자가 파악한 이유는 ‘보수당이 권력을 대단히 열망하는 정당’이라는 점이다. ‘배타적 집단으로 남아 있지 않았고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동아시평], 동아일보 2008. 7.)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실물경제 침체가 더 큰 걱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발전해온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다룬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영국 보수당의 역사’(동아시아연구원)란 책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해드린다.”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나의 애독서] 세계일보 200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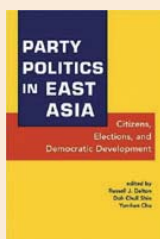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최병선 · 김선혁 공편 (2007. 10)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회과학부문 2008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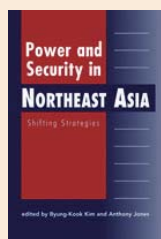
“EAI는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개헌정국으로 빨리 들어가기 이전에 분권화를 국민적 아젠다로 끌어올려 개헌논의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구시대적인 5년 단임제 대 4년 중임제의 개헌담론을 청산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서문 중)

“국정운영시스템의 선진화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분권화를 지목하고 분권헌법없이 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명제를 주장하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분권개헌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모았다.”(연합뉴스, 2008. 2.)

영문단행본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Russell J. Dalton, et. al., ed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8. 5)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Byung-Kook Kim and Anthony Jones
Lynne Rienner Publishers (2007. 6)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Byung-Kook Kim · Jorge I. Domínguez
Routledge (2005. 3)

국문단행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김민전 · 이내영 공편 (2009. 4)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주요분석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로부터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까지 불과 4개월 시차 사이에 발생한 유권자들의 변화에 주목했다.”(서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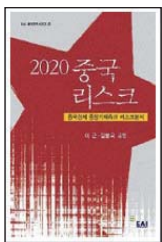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이현우 · 권혁용 공편 (2008. 3)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가 합작하여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의 ‘17대 대통령선거 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서는 한국유권자의 이면과 민심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직 인수 성공조건》 이홍규 · 김병국 외 (2007. 12)

대통령직 인수의 해외 사례연구와 함께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권인수과정을 주도했던 정책 전략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종합하여 새로운 정부의 정부 인수과정에 실질적인 지침이 되는 정책제안서이다.



《2020 중국리스크》 이근 · 김병국 공편 (2007. 2)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들 중에서 정권유지라는 최상위 목표와 그 하위목표인 경제성장과 갈등완화를 구분하고, 2020년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중국리스크의 핵심을 연역적으로 도출하여 그 변화 방향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다.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하영선 편 (2006. 10)

EAI 한미동맹연구팀은 한미동맹의 어려움은 한국정부의 탈냉전논리와 미국정부의 변한논리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냉전과 탈냉전동맹을 넘어서 ‘복합동맹’으로의 변환을 제안한다.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하영선 편 (2008. 4)

“21세기 복합변환의 무대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대 뒤편으로 밀려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의 현실적 제약과 내일의 꿈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 만들기’가 필요하다.”(서문 중)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EAI 한미동맹 TASK FORCE (2008. 2)

시기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전략권 이양 논의를 질타하면서 상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 마련이 절실함을 주장한다. 또한 전지구적 변환과 동아시아 지역 국제질서의 흐름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한미 군사 지휘체계 모델을 제시한다.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이내영 · 이현우 · 김장수 공편 (2007. 10)

2006년 실시한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06 전국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이다. 9명의 필진이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유권자의 태도변화와 투표결정 요인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하영선 편 (2006. 12)

EAI 국가안보패널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북핵위기의 궤적을 예측해 보고 북핵위기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팀’을 구성하여 7개월간 토론을 거쳐 출간한 보고서이다.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장훈 · 김병국 · 정진영 공편 (2006. 7)

“시장이 생산하는 불평등, 비인간적 사회관계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하여 제어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장과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룰 때, 시장경제도 변성하고 민주주의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본문 중)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강원택 편 (2007. 1)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는 2005년 실시한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국민들 사이에 단일민족의 신화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21세기 한국외교의 대전략》 하영선 편 (2006. 6)

한국의 외교안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21세기 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축과 지구·동아시아·한반도의 공간축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EAI 국가안보패널은 이 책을 통해 21세기 한국외교의 대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 성공조건》 박찬욱·김병국·장훈 공 편 (2004. 5)

국회가 정책을 논하는 공론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정책을 통해서만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EAI 국회개혁팀은 정책논의에 나서는 국회의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가게끔 하는 국회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구상했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이윤정 편 (2003. 12)

EAI 정치개혁연구팀이 2003년 4월부터 2개월 간 진행한 '연사초청 세미나'의 내용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엮은 책이다. 정치개혁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일관되게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박세일·장훈 편 (2003. 12)

정책경쟁이 부재한 한국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선거·정당·국회 제도개혁이 성공해야 한다. EAI 정치개혁연구팀은 전현직 국회의원 및 행정부 인사들의 증언과 조언 그리고 그들과의 토론을 정치개혁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담아내고 '신 정책세력'을 통한 정치개혁의 성공조건을 제시한다.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이내영·이하경 편 (2003. 6)

2003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사회 전반과 각 분야별 국민 정치의식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려 했다. 국민들이 참여정부에 기대하는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별 75개 문항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자료집이다.



《2002 대선평가와 노무현정부의 과제》 이내영·이근·정원철 공편 (2003. 1)

한국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 공무원, 연구원, 기업 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약 2,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김대중 정부 평가 및 2002 대선 후보와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새 정부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통령의 성공조건 I, II》 EAI 대통령개혁연구팀 (2002. 12)

대통령 자신의 덕목과 역할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개편 및 운영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그리고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언론보도 (2007.11~2009.11)

2009

[WPO · EAI · 매경 20개국 국제여론 조사2009]

매일경제	
군사 · 경제력 최강 G2 평판 왜 안 좋을까	2009.11.12
조선일보	
세계 2강 美 · 中, '소프트파워' 약해	2009.11.12
매일경제	
위기재발 막기 위해 국제기구 신설	2009.07.22
매일경제	
오바마 이후 美 보는 눈 좋아졌다	2009.07.08
매일경제	
세계지도자 오바마 1위 · 반기문 2위	2009.06.30

[제3차 한미동맹 컨퍼런스]

조선일보	
韓美同盟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	2009.11.04
연합뉴스	
북핵, 북한체제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2009.11.03
아시아투데이	
평택, 미래전략대토론회 개최	2009.11.02

[EAI · 중앙선데이 · 한국리서치 정기여론 조사]

중앙선데이	
사교육 완화될 것 10%, 심각해질 것 49%	2009.11.01
조선일보	
민주, 처져만 가는 지지도 왜?	2009.09.29
중앙선데이	
道 없애고 시 · 군통합 57%, 선거횟수 줄여야 81%	2009.08.30
중앙선데이	
우리도 핵무기 보유해야 60.5%...	
5년 전보다 10%p 늘었다	2009.06.28
중앙선데이	
北 위협에 위기감 고조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선 안돼"	2009.06.28
중앙선데이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 보여 달라	2009.06.28
조선일보	
국회, 법 잘 지키고 있다 5.3%뿐...여론조사 꼴찌	2009.03.26
문화일보	
학업성취도 평가 현재대로 52%	2009.02.28
연합뉴스	
이대통령 국정지지도 38.5%	2009.02.25

[EAI · 중앙일보 계층인식 조사]

JoongAng Daily	
[Editorial] Maintaining the middle class	2009.09.28
JoongAng Daily	
Economic crisis took toll on middle class identification	2009.09.28
중앙일보	
[사설] 중산층 복원의 첫걸음은 일자리 만들기다	2009.09.23

중앙일보

금융위기로 3불 증폭...중산층 41% 난 하위층 2009.09.22

중앙일보

공교육 살려 밑 빠진 교육비 부담부터 덜어줘야 2009.09.22

중앙일보

국민 49% '나는 불안한 중산층' 2009.09.22

[EAI · 중앙선데이 정치인 리더십 조사 2]

중앙선데이
영향력 1위는 MB, 신뢰도 1위는 박근혜 2009.08.02

[EAI · 중앙일보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5]

JoongAng Daily
Credibility low for DP, GNP: Survey 2009.07.04

중앙일보

한나라당 · 민주당, 신뢰도 나란히 최하위 2009.07.01

중앙일보

힘은 더 세지는데 믿음은 갈수록 약해져 2009.07.01

[EAI 지구넷21 토론회]

JoongAng Daily
U.S. Scholar frowns on South's policies on North 2009.06.29

중앙선데이

북 핵은 동북아 넘어 중동까지 연계된 글로벌 위협 2009.06.28

[EAI · 매경 정치안보의식 조사]

매일경제
北 핵실험 韓美同盟 지지 늘어 2009.06.08

[EAI · 중앙일보 MB 취임1년 여론 조사]

중앙일보
이대통령 지지도 32%...민주당 지지층 '성장우선' 55% 2009.02.23

중앙일보

MB정부, 지지율보다 신뢰회복이 더 급해 2009.02.23

중앙일보

최우선 해결과제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 61% 2009.02.23

중앙일보

한반도 정세불안 52%, 북핵 인정될 듯 37% 2009.09.23

[국가안보패널]

중앙일보
북한은 한국의 도움 필요...통미봉남 실패할 것 2009.01.07

중앙일보

오바마, 북한에 마냥 끌려가지 않아 2009.01.07

중앙일보

대북 문제로 남남갈등 극심, 당파성 버리고 현실 직시를 2009.01.07

중앙일보

북한 선군체제 막 내리기 시작...올해 큰 변화 시작될 것 2009.01.06

중앙일보

'북미회담+6자회담+북한 변화' 있어야 북핵 해결 2009.01.06

중앙일보

북한, 개성공단을 정치적 아닌 경제적 시각서 봐야 2009.01.06

중앙일보

오바마의 새 판 짜기에 EU·동아시아 역할 커질 것 2009.01.02

중앙일보

오바마 대외정책의 화두는 '균형력' 2009.01.02

중앙일보

중국·일본 미국 대신할 리더십 보여주진 못해 2009.01.02

[EAI·매경 경제·경영학자 패널 조사 5]

매일경제

재정지출 효과 보려면 신속하게 해야 2009.01.02

2008

[EAI·CCGA 소프트웨어 국제컨퍼런스]

중앙일보

한국, 소프트웨어 강국되려면 국가 브랜드부터 키워라 2008.12.16

중앙일보

한국, 동아시아 갈등 중재할 적임자 2008.12.12

[EAI 지구넷21 토론회]

조선일보

美 새정부, 北核 문제에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2008.11.08

중앙일보

오바마, 동맹국 협력 강화에 무게 2008.11.08

문화일보

오바마, 경제위기로 국제문제 기여 요구 가능성 2008.11.08

[EAI·ANU 한호 리더십 포럼]

중앙일보

눈에 보이는 호주, 안 보이는 호주 2008.10.16

[WPO·EAI·경향 국제여론 조사 2008]

경향신문

세계인 46%만 이슬람 극단세력이 배후 2008.09.11

경향신문

한국 정부신뢰도 19개국 중 꼴찌 2008.05.15

경향신문

언론자유 중요성 공감 81% 2008.05.02

경향신문

79% "향후 10년간 유가 상승" 2008.04.21

경향신문

한국 인종평등 중요 94%, 개선됐다 4% 2008.03.21

[EAI·경향 종교와 한국정치 여론 조사]

경향신문

[사설] 종교편향, 끝내 국론분열로 치달는가 2008.09.04

경향신문

불교-개신교 국정운영 평가, 종교간 균열 심각 2008.09.03

[제2차 한미동맹 컨퍼런스]

조선일보

한국의 주류 반미감정, 극렬 좌파의 반미와는 달라 2008.07.04

중앙일보

북한 지원만 하고 책임 안 묻는 건 무책임 2008.07.04

[EAI 시민사회 데이터뱅크 2]

중앙일보

불법시위 크게 오래 할수록 원하는 것 얻었다 2008.07.24

중앙일보

민주화 이후에도 살아남은 대중동원의 신화 2008.07.24

중앙일보

노 정부, 불법시위에 가장 물렁했다 2008.07.24

매일경제

MB 정부 신뢰 되찾을 특단의 쇄신책 요구 2009.01.02

매일경제

야당·노조 경제회생에 장애 2009.01.02

매일경제

올해 1.6% 성장...2010년께 회복될 것 2009.01.02

매일경제

MB 첫째 경제운용 48점 2009.01.02

매일경제

신사업 육성하고 교육개혁 나서야 2009.01.02

매일경제

[사설] C학점 받은 정부 신뢰 회복 시급 2009.01.02

[영국 보수당 연구]

세계일보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영국 보수당의 역사 2009.01.09

연합뉴스

英 보수당에서 배운다 2009.06.29

동아일보

보수의 장수비결 '시대와의 소통' 2009.06.28

매일경제

대한민국 정당, 영국 보수당에서 배워라 2009.06.28

[CCGA·EAI·중앙일보 동아시아 소프트웨어 6개국 조사]

중앙일보

한국 IT·한류 '아시아 개구리' 미국에선 냉담 2009.06.17

중앙일보

국가매력·평판도 미 > 일 > 한 > 중 2009.06.17

InterPress Service

U.S. 'Soft Power' appears stronger than China's 2008.6.19

New York Times

China Still Lags Behind U.S. in Influence 2008.06.17

Reuters

China trails US in "Soft Power" in Asia: Study 2008.6.17

Agence France-Press

China tails US, Japan in 'soft power' influence in Asia 2009.6.17

[EAI·중앙일보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4]

중앙일보

한나라·민주 신뢰도 최하위권 2008.06.14

중앙일보

파워조직 신뢰도 25곳 중 13곳 추락 2008.06.14

[동아시아공동체 연구]

조선일보

동아시아는 유럽과 닮은 통합의 길을 갈 수 있을까 2008.06.07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일보

좌우권력이동은 정치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 2008.04.14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총선패널 여론 조사]

중앙일보

MB에 바라는 리더십 "안정적 화합" 44% 2008.04.14

SBS

'친박연대 돌풍'의 비결은? 정당투표 덕 봤다 2008.04.13

중앙일보

본지, 패널조사에 정치권 회오리 2008.03.24

중앙일보	
대통령 견제 + 새정부 한나라당에 실망 78%	2008.03.22
중앙일보	
달라진 민심, 총선 표심 될진 미지수	2008.03.22
중앙일보	
MB 찍은 3명 중 1명 이탈	2008.03.22
SBS	
총선 쟁점인 '대운하'...반대여론 급속히 확산	2008.03.21
SBS	
이명박 지지자들, 총선서 한나라 지지층 이탈	2008.03.21

[EAI · 중앙일보 · 국제교류재단 조셉나이 초청 컨퍼런스]

중앙일보	
북한주민들 마음 사로잡으려면 소프트파워 필요	2008.02.13
중앙일보	
북핵 폐기, 단기적으로는 하드 파워가 효과	2008.02.18

[국가안보패널]

조선일보	
돈 · 파워 열세 극복할 한국만의 매력 개발하라	2008.01.05
조선일보	
매력적인 문화외교	2008.01.05
조선일보	
매력적인 환경외교	2008.01.05
조선일보	
매력적인 지식외교	2008.01.05
조선일보	
中 · 日 공동체론 앞세워 쟁패...한국 설계도 짜라	2008.01.04
조선일보	
노 정부 균형자론에 中 어리둥절, 美는 배신감	2008.01.04
조선일보	
동아시아의 군비증강, 한국의 선택은 美와 동맹강화 뿐	2008.01.04

2007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대선패널 여론 조사]

중앙일보	
이명박 당선자 국정운영 잘할 것 86%	2007.12.24
중앙일보	
대선 후 여론조사 4.9 총선 적용해보니 한나라 185석	2007.12.24
SBS	
내년 총선도 '이명박 약발' 먹힐까?	2007.12.23
SBS	
이명박 정부 일 잘 할 것 86%...막연한 기대?	2007.12.23
중앙일보	
콘크리트 지지층, 합종연횡 영향 없다 77%	2007.12.15
중앙일보	
2위 싸움은 정동영 17%, 이회창 12%	2007.12.15
중앙일보	
네거티브 안 먹혀, 도덕성이 선택기준 19%	2007.12.15
중앙일보	
빅3 지지도 총성도 MB 90%, 정 83%, 창 62%	2007.12.15
SBS	
흔들림 없는 '1강 2중' 체제, 골수지지층의 힘	2007.12.14
SBS	
유권자의 후보 선택기준은 '도덕성보다 능력'	2007.12.14
중앙일보	
이명박 41.7%, 정동영 15.2%, 이회창 14.7%	2007.11.29
중앙일보	
1위 골수의 힘, 2위 변수의 뒷	2007.11.29

조선일보	
동아시아의 경쟁과 협력,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 키울 때	2008.01.04
조선일보	
北 돌발사태때 韓 · 中 공동대응 체제 구축해야	2008.01.03
조선일보	
러시아가 北 개방 이끌도록 지원을	2008.01.03
조선일보	
對日외교, 실용주의 우선해야	2008.01.03
조선일보	
최대주주 美와 손잡아야 한국도 대주주 반열에	2008.01.03
조선일보	
퍼주기 햇볕은 그만, 이젠 합리적 포용으로	2008.01.01
조선일보	
남북경협, 정부 간섭 말고 시장에 맡겨라	2008.01.01
조선일보	
북핵 해결 낙관 말고 장기전 대비를	2008.01.01
조선일보	
평화체제는 비핵화 본격 추진 뒤 논의해야	2008.01.1

[EAI · 매경 경제 · 경영학자 패널 조사 4]

매일경제	
참여정부 실패요인은 아마추어들의 무능	2008.01.01
매일경제	
성장잠재력 키우란 요구 많아	2008.01.01
매일경제	
대운하 건설 · 7% 성장은 부적합한 공약	2008.01.01
매일경제	
교육부 · 국정홍보처부터 기능 조정을	2008.01.01
매일경제	
청와대와 정치권은 경제 발목 잡지 말라	2008.01.01
매일경제	
올 해 경제 호전 55.6%	2008.01.01

SBS	
대선 표심 유동적...10명 중 4명 '지지바꿨다'	2007.11.28

[EAI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중앙일보	
첫 단추 잘 끼운 루즈벨트 뉴딜 배워라	2007.12.24
중앙일보	
미국의 사례: 클린턴 때 계층불화 인수위 운영 잘못	2007.12.24
중앙일보	
인수위 준비 철저해야, 선택과 집중을	2007.12.24
중앙일보	
정부개혁 속전속결 안하면 관료 논리에 설득 당해	2007.12.22
중앙일보	
인수위 67일이 5년 성패 좌우	2007.12.21
중앙일보	
경험자들이 말하는 인수위 5계명	2007.12.21

[EAI · 중앙일보 차기정부 국가전략 대토론회]

중앙일보	
흔들 리더십 갖춘 프로정부 돼야	2007.10.30
중앙일보	
먹고 사는 문제 풀 실용적 국정운영을	2007.10.30
중앙일보	
시대정신 못 찾은 무능이 진보세력 위기의 원인	2007.10.30
중앙일보	
이번 대선, 일하는 민주주의로 전환 계기	2007.10.30
중앙일보	
사회적 신뢰구축, 획기적 교육 개혁 필요	2007.10.30

EAI 사람들

연구기획

- 이숙종 원장
- 하영선 지구넷21 회장

센터소장

- 이내영 여론분석센터
- 이원덕 일본연구센터
- 조동호 북한연구센터
- 한석희 중국연구센터
- 전재성 아시아안보연구센터
- 곽준혁 가치·윤리연구센터
- Stephan Haggard JEAS 편집주간

패널위원회 위원장

- 하영선 국가안보패널 · 북한선진화 패널
- 강원택 시민정치패널
- 장 훈 세계화와 국가전략 연구팀
- 한상일 일본연구패널
- 이동률 중국연구패널
- 이숙종 뉴평택패널

연구원

- 김 정 선임연구원
- 문용일 연구원
- 서상민 연구기획국장
- 안현정 웹마스터
- 이근수 선임연구원
- 정원칠 선임연구원
- 최은혜 연구원
- 김하정 선임연구원
- 백혜영 대외협력실장
- 신영환 선임연구원
- 양순화 행정실장
- 이소영 연구원
- 정한울 선임연구원
- Stephen Ranger 연구원

국제자문위원회

- Shigeyuki Abe 일본 도시사대 정책학부 교수
- Larry Diamond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 Stephan Haggard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정치학과 교수
- Mike Hobday 브라이튼대 경영학과 교수
- Chung H. Lee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
- Xiaobo Lu 콜롬비아대 정치학과 교수
- Akira Nakamura 메이지대 정치학과 교수
- Robert D. Putnam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 Gilbert Rozman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
- Chia Siow Yue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 Yun-han Chu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교수
- Jorge I. Domínguez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 Robert Hathaway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
- Christopher Hood 옥스퍼드대 정치학과 교수
- Justin Y. Lin 세계은행 선임부총재
- Andrew MacIntyre 호주국립대 정치학과 교수
- Katy Kongdan Oh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
- Siew Tien Jon Quah 국립싱가폴대 정치학과 교수
- Ezra F. Vogel 하버드대 사회과학계열 명예교수



후원회

세종회원	강찬수 유창수	기의석 이상호	김병국 최철원	김병표 현정은	김운호	김형찬	노익상	민선식	박경수	박상용	서영민	신동원	여동찬
충무회원	고승수	고형식	김은영	김 준	남태희	박찬근	변기호	선승훈	신동준	예병민	유창수	이근우	임성빈
울곡회원	공성원 원종숙 정영진	김동건 이규호 정 준	김상기 이민교 조규완	김 원 이성량 주진균	김인섭 이재섭 최윤준	김지영 이종진 최재원	김현전 이지원 한상철	김형국 이해욱 홍선근	노호식 임현진 황 수	노환길 장의영 전기호	서창식 전기호	신영준 정량호	양주명 정병갑
퇴계회원	구상환 이태석	김영섭 이흥구	김용호 주원사우회	김준희	박근아	박진원	백승태	이 근	이내영	이승화	이종진	이창원	이창현
삼봉회원	강윤관 신준희 최복대	곽노전 윤용집 한숙현	김건호 이기환 홍정현	김만호 이병인 황성진	김시연 이진아	김영목 이홍규	김철영 장진호	김희진 주영아	문진성 진선희	민선영 진지운	박용준 차국린	손재기 최 건	신권식 최동규
다산회원	강문선 김국형 김용직 김진혁 문윤성 백혜영 심윤보 윤정림 이정민 이희정 조동현 한선호	고병희 김기정 김우상 김창수 김지욱 서상민 안건영 윤혜성 이정은 임현모 조소영 한승혜	고은희 김기준 김 원 김하정 민지숙 서은숙 안용찬 이경애 이정호 임홍재 조은희 한일봉	고혜선 김남이 김유상 김형재 박대균 성정은 안현정 이근수 이정희 장태곤 조홍식 한정원	공유식 김미영 김유주 김형준 박상준 성정은 안현정 이동훈 이종수 장희진 주미아 한지현	공창위 김석준 김은숙 김효신 박성만 소치형 양순화 이마리 이지원 전경수 주 한 황석희	곽준엽 김연옥 김재두 김희동 박수진 손대현 송우엽 엄찬섭 이민자 이치희 전명선 지혜리 황익숙	구윤정 김영구 김 정 김정은 김희정 박순희 송지연 이선주 이 항 정기용 정아영 정원칠 최신림 황정원	구준서 김영미 김정은 김정은 남윤호 신부희 신성호 이소영 이여희 이해완 정아영 최신영 Stephen Ranger	금영수 김영원 김정은 김정은 남윤호 신부희 신성호 원종애 이여희 이현옥 정원칠 최은혜	김건훈 김용규 김정하 김정은 라종일 신성호 원종애 이여희 이현옥 정원칠 최은혜	김경순 김용남 김지정 류재희 박정호 신영환 육은경 이원종 이현우 정재호 최종호	김경지 김용준 김진영 명정모 배위섭 신윤경 윤상민 이윤미 이혜민 정진영 한금현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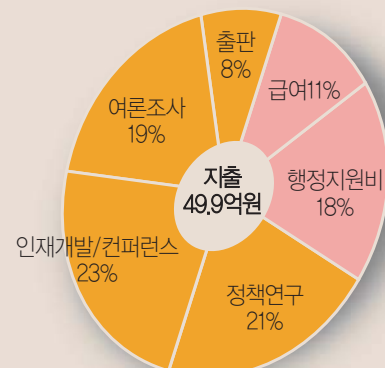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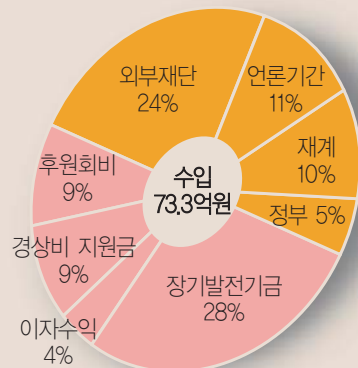
2002년 5월 출범한 이후 7년 동안 EAI의 총수입은 73.3억원이었고 총지출은 49.4억원이었다. EAI는 상당한 수준의 수입 다변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사회는 출범 이후 7년 동안 장기발전기금으로 20.6억원을 기부하였고 경상비 지원금으로 6.5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이사회가 조성한 장기발전기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은 3.3억원에 달한다.

2003년 3월에 조직된 후원회도 수입 다변화의 초석을 다졌다. 매달 후원금을 내는 EAI 후원회는 7명에서 253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이 기부한 후원금의 총누적액은 현재 6.3억원에 달한다. 결국 EAI 가족을 구성하는 이사회와 후원회가 7년 동안 모금한 후원금은 36.8억원으로서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한다. 그 이외의 수입원으로는 17.9억원(24%)을 후원한 국내외 학술문화재단과 7.9억원(11%)과 7.5억원(10%)을 제공한 재계와 언론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도 3.5억원(5%)을 연구비로 지원받았다.

총지출은 EAI가 갖고 있는 장점을 보여준다. EAI는 스태프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아젠다가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인재로 태크포스를 구성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연구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이같은 유연성 덕분에 EAI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연구·인재개발/컨퍼런스·여론조사·출판 사업을 다같이 키울 수 있었다.

EAI는 연구과제의 수를 고려할 때 경상비가 낮다.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받쳐준 스태프는 14명이다. 출범 이후 7년 동안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5.1억원으로서 총지출의 11%였고 임차관리비·통신비·인쇄비 등을 포함한 행정지원비는 8.9억원(18%)이 된다.

EAI는 출범한 이후 7년 동안 재정적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AI가 독립된 민간 싱크탱크, 국민의 지지와 후원 속에 성장하는 연구기관이 되려면 앞으로도 개인후원과 기관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EAI는 후원자의 후원의 뜻과 정성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기며 연구와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후원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미래한국에 대한 투자로 여기고 EAI 후원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세계 수준의 싱크탱크로 우뚝 서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연혁

2002

- 5월 동아시아연구원 개원 /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팀 구성
- 6월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편집권 및 지적재산권 인수(Vol.2 No.2부터)
- 8월 정치사회여론조사 실시 / [대선정책평가] 여론조사 실시 /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바꾸자] 기획보도(중앙일보)
미국정치학회 한국정치사 프로젝트 패널 발표
- 11월 미국 Lynne Rinner Publishers와 JEAS 출판계약 체결 / [대선정책평가] 연구팀 구성
- 12월 [한미관계] 1차 여론조사 실시 / 《대통령의 성공조건 I, II》출판

2003

- 1월 단행본 [2002대선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발간
- 2월 EAI 홈페이지 개설
[참여정부 정책과제] 여론조사 실시 / [국회개혁] 연구팀 구성
[New "Pax" Americana] 국제회의 개최
- 3월 [한국경제개혁 사례연구] 연구팀 구성
- 4월 [신정부정책평가 위원회] 구성 / 북한핵 대책위원회 구성
- 6월 단행본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출간
- 7월 [PSI · 북한 · WMD] 존 볼튼 강연회
- 8월 [참여정부 6개월 정책평가] 여론조사 실시
- 9월 [Peace, Development and Regionalizaion in East Asia] 국제회의 개최
- 12월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국회개혁과 정치개혁》 출판

2004

- 2월 [참여정부 1년 평가] 여론조사 실시
- 3월 [After Development State in East Asia] 국제회의
- 5월 단행본 [국회개혁의 성공조건] 출판
- 6월 여론분석보고서 EARS Series 제1호 출간
국가안보패널구성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NSP Report] 제1호 발간
한미Dialogue 21 제1차 회의 개최, 주제 : "한미동맹의 미래"
- 7월 EAI · CCFR [대외인식 3개국 공동 국민여론조사] 실시
- 8월 [한미동맹 로드맵] 연구위원회 구성 / EAI 홈페이지 개편
- 9월 시민사회데이터뱅크 구축 프로젝트팀 구성
EAI · GlobeScan 국제이슈 및 CSR 조사
- 10월 EAI 지구넷21 출범 / [대외인식] 전문가조사 실시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연구팀 구성
- 11월 SBS 다큐멘터리 [한국과 미국] 공동기획 / Shifting Terrain 세
미나 개최
- 12월 EAI Fellows Program 출범
EAI · 미디어 다음 [정치분야 10대 뉴스 선정]

2005

- 1월 EAI · GlobeScan 국제이슈 및 CSR 조사
- 2월 [안보와 FD] 주한외국기업인 여론조사
- 3월 Robert Gallucci 전 북핵대사 초청강연회 개최
- 4월 [북한연구패널] 구성 / [시민정치패널] 구성
[한국경제개혁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발간
- 5월 [한국 파워기관 신뢰도 영향력 조사] 실시
[America in Question] 국제회의 개최
영문단행본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출판
- 7월 EAI Fellows Program 1기 Fellow 선정
[권력구조개편] 여론조사 실시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초청 [도라산 강연회] 개최
- 8월 [Living Under U.S. Leadership] 국제학술회의 개최
[민주주의 새구상] 발표(중앙일보 8.15)
[중미관계] 연구팀 구성
- 9월 [Varieties of Capitalism in Asia] 국제학술회의
Stephan Haggard 초청 [지구넷21] 개최
- 10월 [대한민국정체성] 여론조사 실시
- 11월 EAI · BBC · 매경 [33개국 국제여론조사] 실시
[분권화] 연구팀 구성
2005년 연차보고서 발간
[후원회의 밤] 개최
- 12월 [경제 · 경영학자 패널] 1차 설문조사 실시

2006

- 4월 [2006 전국지방선거 패널] 1차 여론조사 실시
[지지자-정당 충돌성] 여론조사 실시
- 5월 제1회 EAI Global Academy 개최
EAI · GlobeScan · 매경 [33개국 기업의 CSR] 조사 실시
[한미동맹로드맵] 컨퍼런스 개최
- 6월 북한연구패널 보고서 [쟁점과 시각] 제1호 발간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출판
[시민사회데이터뱅크] 구축 1차 결과 발표(중앙일보)
[System Restructuring in East Asia] 국제학술회의 개최
- 7월 [국가인적자원패널] 구성 /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출판
EAI Fellows Program 2기 Fellow 선정
- 8월 [파워기관 신뢰도 영향력] 2차 조사 실시 / 데세오(DESEO) 창립
[FTA 관련 경제 · 경영학자 패널] 2차 설문조사 실시

- 9월 EAI · 미디어 다음 [외교안보 · 경제전문가] 조사 실시
[Infra Vision 포럼] 출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초청 포럼 개최
[참여정부 정책사] 집필팀 구성
- 10월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출판 / 고건 전 국무총리 초청
[InfraVision 포럼] 개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초청 [InfraVision 포럼] 개최
- 11월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팀 구성 / [정치안보인식] 여론조사
EAI · CCGA [7개국 대외인식] 여론조사 실시
EAI · BBC · 매경 [27개국 국제여론조사] 실시
- 12월 [경제 · 경영학자 패널] 3차 설문조사 실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출판

2007

- 1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출판
B.B.Bell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한미D21] 개최
- 2월 《2020 중국리스크》 출판
- 3월 열린우리당 미래포럼 소속 의원 초청 [InfraVision 포럼] 개최
- 4월 EAI · GlobeScan · 매경 [30개국 기업의 CSR] 조사 실시
[미래 한미군사협력] 연구팀 구성
[2007 대선 패널] 1차 여론조사 실시(~12월)
- 5월 Alexander Vershbow 주한 미대사 초청 [한미D21] 개최
- 6월 [파워기관 신뢰도 영향력] 3차 조사 실시
[주요 정치인 신뢰도 영향력] 조사 실시

- EAI · CCGA · WPO [17개국 국제대외인식조사] 실시
- 7월 [대통령직 인수위] 연구팀 구성 / [교육 및 조기유학] 7대도시 여론조사 실시
EAI Fellows Program 3기 Fellow 선정
- 8월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출판
- 10월 [Mansfield Committee on U.S.-ROK Relationship] 국제회의 개최
단행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출판 / 《보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출판
[차기정부 국가전략 대강연회] 개최
- 11월 2007년 연차보고서 발간
- 12월 EAI [후원회의 밤] 개최 / [경제 · 경영학자 패널] 4차 조사 실시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출판

2008

- 1월 영문저널 JEAS, SSCI 등재
- 2월 Joseph S. Nye 초청 강연회 및 현자회의 개최
[중국연구패널] 구성 / [뉴평택 포럼] 출범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출판 / 이숙중 원장 취임
- 3월 EAI · WPO [국제인권] 국제여론조사 실시
T.J. Pempel 초청 [지구넷21 포럼] 개최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총선패널] 여론조사 실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출판
- 4월 [17대 총선패널] 여론조사 실시
Peter Katzenstein 초청 [지구넷21 포럼] 개최
《동아시아공동체》 출판
EAI · CCGA [동아시아 소프트파워] 국제여론 조사 실시
- 5월 영문단행본 *Party Politics in East Asia* 출판
EAI · 중앙일보 [파워기관 신뢰도 영향력] 조사 실시

- [북한선진화] 연구팀 구성
[평택시 발전을 위한 협업체 구축] 연구팀 구성
- 6월 [세계화와 국가전략] 연구팀 구성 /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출판
- 7월 제1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
EAI Fellows Program 4기 Fellow 선정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 비교연구] 2차 결과 발표(중앙일보)
《보권헌법》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8월 [일본연구패널] 구성 / [한국정치와 종교] 국민여론조사 실시
- 9월 EAI · CISS [동북아안보대화] 개최(베이징)
- 10월 EAI · ANU 제1회 [한호리더십 포럼] 개최(호주 캔버라)
- 11월 제2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
- 12월 [경제 · 경영학자 패널] 5차 조사 실시
EAI · CCGA [동아시아 소프트파워]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9

- 1월 맥아더재단 ASI 프로그램의 핵심연구기관으로 선정
[아시아안보연구 센터] 개소식 / [중산층 대책] 연구팀 구성
- 2월 EAI · 한국리서치 [매월 정기여론조사] 실시
[이명박정부 1년 평가] 국민여론조사 실시
- 4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출판
- 5월 MacArthur Asia Security Initiative 연례회의
제1회 [Smart Talk포럼] 개최
조현 에너지자원 대사 초청 [InfraVision 포럼] 개최
EAI 홈페이지 전면 개편
- 6월 EAI · 매일경제 [정치안보인식] 국민여론조사 실시
Stephan Haggard 초청 [지구넷21 포럼] 개최
EAI · WPO [2009 국제여론] 조사 실시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파워기관 신뢰도 영향력] 조사 실시

- 7월 [주요 정치인 신뢰도 영향력] 조사 실시
이태식 전 주미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8월 [평택시 교육국제화 방안] 연구팀 구성
- 9월 [국민계층의식] 여론조사 실시 / [2009 아시아개발은행(ADB) 인식조사] 실시
- 10월 현인택 통일부 장관 초청 [지구넷21 포럼] 개최 / [가치와 윤리 센터] 설립
- 11월 [평택 미래전략 대토론회] 개최 / 제 3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
제2회 [한호리더십 포럼] 개최
EAI · CISS 제2회 [동북아안보대화(NASD)] 개최
박동선 국제경제협력 대사 초청 [InfraVision 포럼] 개최
2008~2009년 연차보고서 발간
- 12월 [후원회의 밤] 개최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EAI

